Jordan B. Peterson, Beyond Order: 12 More Rules for Life

서문

혼돈이 당신을 끌어들여 집어삼킬 때, 자연이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병을 내릴 때, 부패한 권력이 당신이 이룬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갈가리 찢어놓을 때 그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알면 유익하다…. 인생을 결코 쉽지 않아서 나머지 반쪽에 담긴 영웅적인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과 영혼을 곧추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방식을 실천하며 살 필요가 있다.

나의 가족 간의 사랑, 내 친구들이 건네준 용기,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있었기에 나는 지옥 같은 심연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었다.

왜 <질서 너머>인가? 질서는 탐구된 영역이다. 하지만 질서정연한 모든 상태는 비록 편하고 안전하긴 해도 나름의 결함이 있다.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영원히 불완전하다. 우리 인간은 광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집스러우리 만치 맹목적인 데다 세계가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예상 밖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전체주의는 원칙상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곳에서 완전한 통제를 이루려고 할 때 동력을 얻는다.

우리가 힘들게 얻은 지혜에 따라 행동할 때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질서라면, 혼돈은 우리를 둘러싼 잠재적 가능성들이 우리의 예상이나 시야 밖에서 뚫고 튀어 오르는 것이다.

혼돈은 파격/새로움/예상치 못함/변화/붕괴이며, 심지어 추락일 때도 허다하다.

안전과 통제가 지나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떻게 피해야 유익할 수 있을까를 핵심 주제로 삼는다. 주변에서 우리가 통제하려는 것들이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을 자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이해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한 발은 질서 안에 놓고 다른 발로는 그 바깥쪽을 디뎌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 그 변경안에서 아직 화해하거나 적응하지 못한 것들과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면서 두려움을 통제하고 배움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장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발견할 힘을 얻는다.

법칙 1.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외로움과 혼란

사람은 타인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마음의 질서를 유지한다.

사회제도, 온전한 정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잘 통합되어 있을 뿐 이나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방식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인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버릇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주의를 주며 최선의 모습을 보이라고 계속해서 요구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신호들을 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가리키기의 의미

아이는 자신의 집게손가락을 사용해 흥미를 끄는 모든 물체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아이의 행동과 의도에는 누가 봐도 분명히 어떤 중요성이 담겨있었다. 이 때 중요성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타인의 관심을 끌어내려면 행동 또는 태도의 경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심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공통 화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중요하거나 흥미롭다고 여기는 것에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우선 당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더 결정적으로는 당신이 의식적인 주체로서 이 집단에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소통의 주제로 삼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무한한 현상과 사실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세계를 가치라는 기능적인 세계로 축소하는 과정이다.

무엇을 가리켜야 하는가

사회적인 해결책과 계획

1) 앞에서 보았듯이 그 계획은 원칙상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그 계획이 다른 것들에 비해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삶을 지속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발전해온 것이 사회제도다. 사회제도는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을 악화시키지 않고 더 좋게 만드는 것인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이다.

소통과 타협을 통해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자원이 풍부한 더 넓은 세계로 위탁할 수 있다.

본래 위계 구조는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 사회적으로 조직된 도구이며, 진보와 평화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사회제도이다.

밑에서 위로

최초의 다세포 유기체는 대개 감각 기능과 운동기능이 덜 분화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감각과 운동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1:1이다. 즉. 자극 A는 반응 A만 일으키고, 자극 B는 반응 B만 일으킨다.

신경계를 갖추었다면 주변 환경이나 정신적/신체적 조건에 따라 ‘똑같은’ 입력 패턴에서 ‘다른’ 출력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각 생명체는 지위 협상과 경쟁을 거쳐 집, 음식물, 짝 같은 필수 자원의 이용권을 결정하는 위계 구조에 배치된다. 최소한의 복잡성과 사회적 본성을 가진 생물은 모두 고유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위치를 잘 알고 있다. 또한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암묵적/명시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한다.

위대한 발달 심리학자 장 피아제가 발견했듯이 타인과의 놀이는 참가자들 사이에 공통의 목표가 확립되어야 가능하다. 피아제는 게임의 규칙을 집행하는 데 에너지가 든다고 가정했을 때, 규칙이 외부의 힘에 강제되는 게임보다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게임이 우월하다고 보았다.

**인생은 단지 게임 한 판이 아니라, 일련의 게임이다. 각 게임은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특수성을 가진다. 하지만 최소한 출발점(유치원, 0 대 0, 첫 데이트, 첫 취직)과 향상 과정, 그리고 바람직한 목표(고등학교 졸업, 이기는 점수, 지속적인 연인 관계, 높은 직위)가 있다. 최고의 경기자는 한 게임의 승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초대를 받아 계속해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운이 좋고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곳에서 배울 수 있다.

바보의 유용성

**위계구조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은 유용하다. 감사와 겸손의 싹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왜 ‘감사’인가? 믿을 만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진정 감사해야 할 일이다. ‘겸손’은 또 무슨 말인가? 충분히 안다 생각하고 꽉 막힌 사람이 되기보다는 모른다 생각하고 가르침을 정하는 편이 낫다.** 아는 것은 유한하지만 모르는 것은 끝없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초보자가 될 필요가 있다. 카를 융은 바보를 대속자(흠결 하나 없는 온전한 사람)의 전신으로 보았다.

초보자는 참을성과 인내를 길러야 한다. 물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무지하고 서툴고 미숙한 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위대한 것은 흔히 작고 무지하고 쓸모 없는 것에서 시작된다.

신화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들은 주로 미천한 환경(예를 들어 이스라엘 노예의 자식으로 미천한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과 큰 위험(이스라엘의 아이는 한 살이 되기 전에 모두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속에서 태어난다. **따라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큰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신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현재의 게임이 참여하고, 다음 행보에 필요한 지식/자제심/수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는 더 이상 이 세계에서 점하게 된 자리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냉소를 날리지 않고, 주어진 구조와 위치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전에는 자존심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았던 기회에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료의 필요성

초보자를 경험하는 것도 좋을 일이지만 나이나 신분이 비슷한 동료를 곁에 두는 것도 좋다. 진정한 소통은 거의 항상 동료 사이에서 이뤄진다. 위계 구조의 위쪽으로는 정보 이동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신이 상사에게 진실을 말하고자 할 때는 가능하면 둘만 있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문제를 다루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해결책을 말할 때는 충고하듯이 하면 안 된다.**

많은 동료와 평등하게 잘 지내고 싶다면 주고받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위계 구조의 중간에 있으면 동료들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좋다.

성인의 경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사회연결망의 질이 좋을수록 모든 사망 원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 쪽이 받는 쪽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건강상 혜택을 누린다고 한다.

친구는 인생의 짐과 기쁨을 모두 나눠준다.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동료의 공을 인정할 만할 때 인정해주고, 모두가 하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을 공평하게 나눠서 하고,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뤘을 때 약속한 시간에 맞춰 최선을 다해 제 몫을 하고, 당신을 기다리는 동료들 앞에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주어진 공식 업무보다 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동료들의 신뢰를 얻어라. 그러면 당신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동료들이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권위의 모습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면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그들은 권력이 아니라 능력에 마땅히 따라붙는 권위를 갖게 된다.

책임의 철학: 책임감 있는 사람은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해결에 나선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고려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다.

사람이 권위를 행사할 때는 그가 가진 능력을 동원한다. 사람들은 그 능력을 자연스럽게 알아보고 인정하고, 정의가 살아 있음에 안도하며 기꺼이 그를 따른다.

**진정한 권위는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자제한다는 점이다.**

좋은 자질을 가진 훌륭한 젊은이가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한 기쁨을 준다.

불충분한 기존 제도

과거의 해결책을 생각 업이 되풀이하거나 권위를 내세워 고집한다면 변화가 불가피할 때 큰 위험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문제 해결 구조를 중시하면서도 창의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합리적인 보수주의와 새로운 활력을 북돋는 창의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하지만 생산적이고 제 기능을 하는 위계 구조와 한때 위대했던 낡은 껍데기는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의존하기보다는 관찰하고 식별하는 능력과 열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비윤리적인 급진주의자: 복잡한 현실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신의 무지를 알아채지 못하며, 과거의 물려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

균형이 필요하다

보수주의가 나쁘지 않고, 창의적 변화 역시 나쁘지 않으며, 각각에는 고유한 위험이 있음을 명심하라. 이 지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두 관점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다양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 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는 순간을 알아볼 수 있다. 복잡한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권력에 굶주려 이기적으로 현 상태를 옹호하는 사람과 진정하 보수주의자를 구별하고, 철학도 없이 자기기만에 빠죠 무책임에게 반란을 꾀하는 사람과 진실로 창의적인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냉정한 눈이 필요하다.

어떻게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보수성과 창의성이 완전히 상호의존적임을 이해해야 한다. 제약, 규제, 임의적 경계, 규칙들은 사회적 조화와 심리적 안정을 지탱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토대가 된다.

인격의 위계 구조와 변화 가능성

이야기는 틀을 제공한다. 이야기는 우리가 모방할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패턴을 제공하지만, 그 패턴은 또한 일반적이어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위대한 이야기에서 등장인물들이 드러내 보이는 무의식을 발견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딱딱한 사실들로 이뤄진 세계를 지속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호혜적인 가치들로 이뤄진 세계로 해석한다.

영웅은 최고조에 이른 개인, 승리자, 용사, 기지가 풍부한 사람, 마침내 당당하게 승리하는 약자, 위험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자 등이다.

**어떤 행동이 그 행동을 정한 규칙의 목적을 훼손할 때는 규칙을 따르지 마라. 그럴 땐 위험하더라도 합의된 도덕과 반대로 행동하라. 규칙을 충실히 따라서 빛나는 본보기가 될 수 있을 때는 규칙을 따라라. 하지만 그 규칙이 큰 걸림돌이 되어 그 핵심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게 할 때는 규칙을 깨뜨려라.**

복음서 전체를 조망하면 예수가 모순적인 인물로 느껴질 정도로 전통에 대한 존중과 창의적 변화의 필요가 팽팽한 긴장을 이룬다. 어린 나이에 율법을 완벽히 이해했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예수는 안식일의 전통을 거듭 위반한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처럼 신의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같은 날 안식일에 일하는 한 사람을 보고, 그자에게 말했다. 오 진실로 그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그대는 복 받은 사람이요,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대는 저주받은 자, 율법을 어긴 자로다.”

**무슨 뜻일까? 만일 율법의 필요성, 그 신성함, 그로써 방치되는 혼돈, 율법을 따르는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는 방식, 율법을 확립하는 데 드는 비용, 율법을 깨뜨릴 때 발생할 위험을 이해하면서도 더 높은 선에 봉사할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면 당신은 고상한 도덕적 행동을 한 것이다. 하지만 위반하고 있는 규칙의 중요성을 알려 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행동한다면, 당신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전통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망친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는 오른손이 앙상하게 마른 사람을 고치면서 이렇게 말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감사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과거를 지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를 유지하고 지탱해준 오래된 질서가 비틀거리고 삐거덕거릴 때는 그것을 수선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역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삶의 안전한 울타리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 우리의 제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해야 한다는 역설을 말이다. 세계의 안정성과 역동성은 우리가 그 이중 능력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법칙 2.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모든 배움은 일종의 기억해내기라고 믿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본질상 불멸하는 영혼은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태어나는 순간 다 잊어버리므로 삶의 경험을 통해 되살려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오랜 진화를 거쳐 우리에게 구축된 능력들이 휴먼 상태에서 깨어나 발현한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지혜를 간직하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줄 안다. 이것은 우리와 동물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침팬지와 돌고래 같은 포유동물은 복잡하고 지적이긴 해도 그들 종의 전형적인 행동을 매 세대 거의 똑같이 되풀이한다. 이와 반대로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접촉하고 조사하고 적응하며,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삼는다.

이야기는 언제 잊히지 않을까?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인지하지만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는 세련된 존재 양식(복잡한 문제들과 해답들)을 전달할 때다.

가라, 모세, 이집트 땅으로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정신분석학자들과 종교 사상가들은 성경의 <출애굽기>를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심리적/사회적 변화의 사례라는 점에서 원형적 이야기로 본다.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의 출현

적어도 이야기는 오랜 관찰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가는 동안 백성들이 서로 싸우다가 조언을 구하자 모세는 도덕 법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백성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깊이 숙고했다.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관으로 일한 뒤에 십계명을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잊을 수 없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본질을 포착하고 정제하고 널리 전하고 명확히 다듬는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관심을 끌고 따라 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 속의 매력적인 주인공처럼 보고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 안에는 모험가/연인/지도자/예술가/반항아가 잠자고 있으며, 희극과 문학을 통해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마테리아 프리마(materia prima), ‘제1원소’

연금술사들은 제1원소를 다른 모든 것(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모두)이 발생하거나 파생하는 근본 물질로 여겼다.

세계를 잠재성이나 정보로 생각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우편물 = 종이와 잉크로 구성, but, 재료는 아무런 의미 X, 중요한 것은 메시지.

이제 당신은 결정을 해야 한다. 편지를 열고 ‘안에’ 있는 것과 대면한 뒤 두렵더라도 해결책을 궁리하고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방금 알게 된 것을 무시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면서 심리적/신체적 대가를 치를 것인가? 첫 번째 길을 택한다면 당신은 두려워하는 것(끔찍한 괴물)과 자진해서 대면해야 하고, 그 결과 더 강해지고 완전해질 것이다. 두 번째 길을 택한다면 당신은 이 문제를 괴물 형태로 남겨두고, 칠흑 같은 밤에 무서운 맹수의 눈을 본 작은 동물처럼 고통당할 것이다.

현실의 게임 참가자는 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게임의 특수성과 별개로 도덕적 경기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추격꾼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경기자는 서로 충돌하는 복잡한 의무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꿋꿋하게 추구한다.

특별히 불운하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주의를 사로잡는 어떤 것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일수도 있고, 스포츠나 정치/사회/경제 문제나 과학 연구일 수도 있으며, 예술이나 문학이나 연극을 향한 열정일수도 있다.

살면서 추구할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어떤 것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때 우리는 그것에 이끌려 길을 가고, 그러다 또 다시 의미 있는 빛을 만난다. 우리는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추구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번성한다.

완전히 발달한 인격에는 탐구, 질서, 이성 같은 남성적인 측면과 혼돈, 장래성, 배려, 소생, 감정 같은 여성적 측면이 모두 있다. 탐험을 충분히 함으로써 두 요소를 다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러는 편이 이상적이다.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고결한 영웅의 출현

우리가 허구의 이야기에 끌리는 까닭은 그만큼 우리 자신의 경험이 실제로 문학적이고 서술적이고 구체적이고 이야기 같기 때문이다.

고대 신들이 아프수(질서)를 공격해 죽이고, 그의 시신 위에 거처를 세운 것이다. 경솔하게 전통을 말살하면 혼돈이 (다시) 찾아온다. 무지로 인해 문화가 파괴될 때 괴물이 출현한다.

놀랍게도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최고신(최고선)이 면밀한 주의력과 효율적인 언어, 그리고 미지와 혼돈에 맞서고 극복하는 용기와 강인함과 관련 있음을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현실을 표현하는 것, 심지어 사악하고 소름 끼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 현명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중요한 성취라 해도 무방하다.**

영웅은 행동과 지각의 최고 원리를 구현한 존재로, 원시적인 심리 요소들, 즉 정욕/분노/굶주림/갈증/공포/기쁨 등을 지배해야 한다. 이 영웅의 원리를 계속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 모든 영웅은 태초에 인간의 조상들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비전과 용기가 있다면 극악한 뱀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웅, 용, 죽음과 부활

**오물 속에서 발견하리라를**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이는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긴요한 것은 가장 보기 싫은 곳에 있다는 뜻이다.

은신처에 숨어 있는 뱀과 담판을 지을 정도로 용감한 사람은 잠재성으로 존재하는 막대한 부에 접근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런 보물은 이미 밝혀진 것들 그리고 안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생을 걸고 모험하는 자를 기다린다. 그는 죽지 않는다면,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who dares wins)**가 된다. 그리고 모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우리는 토끼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

창세기에서 뱀과의 만남이 남녀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듯이. 그 덕분에 인간은 각성하여 통찰력을 얻고는 즉시 허약함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깨닫지 않는가. 진실은 가혹하다. 맹수는 잡아먹고, 용은 초토화하고, 혼돈은 파괴한다. 위협은 현실이다. 때로는 진실, 미덕, 용기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위협에 맞서는 것이 최선이다. 때로는 자신의 일부가 죽음으로써 죽음 자체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끔찍한 것이 출현할 때 우리는 자발적인 죽음과 소생(death and rebirth)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릇된 확신의 완고한 껍데기, 지나친 질서와 무기력을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영웅 중 영웅(메타영웅)은 논리 상 **영웅 정신이 필요한 모든 곳을 아우르는 공통의 장소(**메타세계)에 존재할 것이다. 영웅은 선과 악, 두 힘의 아이이자 중개자로서, 선의 승리를 이끌 뿐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바꾼다(또한 질서가 낡고 타락했을 때는 질서를 혼돈으로 바꾸고 다시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결국 어떤 이야기의 행위자(그리고 그 줄거리와 인물에 깊이 감동한 사람)는 창조적 변화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정신은 도그마를, 진리는 가정을, 마르두크는 고대 신을, 창의성은 사회를, 그리스도는 율법을 영원히 초월한다.

더 높은 도덕을 위해 법칙을 깨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 법칙을 철저히 익히고 훈련해서 그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법칙의 자구가 아니라 그 정신에 맞게 법칙을 깨야 한다.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무엇보다 진실한 인격은 실수를 흔쾌히 인정한다.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은 시대에 뒤진 인식/생각/습관을 자발적으로 벗어던지고, 장애물을 돌파해 더 크게 성공하고 성장한다. 그들은 고통스럽더라도 낡은 믿음을 불에 태워 소멸시키고, 새롭게 태어나 앞으로 나아간다. 또한 죽음과 소생을 거치는 동안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전달하여 다른 이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떤 것을 겨냥하라. 현재 개념화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를 정하라. 그 목표를 향해 비틀대며 나아가라. 그 과정에서 당신의 실수와 오해를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마주해 잘못을 바로잡아라. 당신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라. 과거, 현재, 미래 전부 중요하다. 걸어온 길을 지도에 표시하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지금 당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출발점에서 종착지까지를 한 선으로 표시하지 못할 테니. 마찬가지로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 혼돈에 빠지고 희망과 영감에 목이 마를 것이다. 어쨌든 당신은 여행을 떠난다. 당신은 모험을 하고 있으니 지도가 정확할수록 좋다.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맞서 싸워라. 당신이 가는 길을 의미 있는 인생의 길, 질서와 혼돈의 경계에 해당하는 좁고 험한 길이며, 그 길을 끝까지 종주할 때 비로소 질서와 혼돈이 질서를 이룬다.

높고 고상하고 심오한 어떤 것을 겨냥하라. 그 과정에서 더 좋은 길이 나타나면, 일단 몇 걸음을 걸어본 다음 경로를 바꿔라. 하지만 조심하라. 길을 바꾸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쉽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땐 방법이 있다. 현재의 길에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배운 뒤에 당신 앞에 놓인 새 길이 현재의 길보다 어려워 보인다면, 마음을 바꿀 때 당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 이런 식이라면 지그재그로 전진하게 된다. 가장 효율적인 여행 방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 스스로 훈련하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알아가면서 당신의 목표는 불가피하게 바뀌기 때문이다.

뜻이 있고 운이 따른다면, 당신은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발견할 것이고, 시간과 함께 그것을 더 좋게 다듬어 갈 것이며, 아마 순간적인 만족과 기쁨 이상의 것을 얻어낼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신은 이야기의 주인공,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규율을 잘 지키는 체류자, 창의적 변화의 주체, 가족과 사회에 이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법칙 3.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빌어먹을 접시들

첫째, 어떤 일이 매일 일어난다면 그건 ‘중요한’ 일이다. 점심 식사는 매일 되풀이된다. 따라서 만일 점심시간에 사소하지만 성가신 일이 상습적으로 일어난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른바 사소한 짜증(계속되면 결코 사소하지 않다)은 표출하거나 해결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놔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그런 일들이 백 가지 천 가지 쌓이면 당신의 비참해지고 결혼 생활은 파탄 난다. 따라서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한체 하지 마라. 서로 협의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상의하라.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삶은 반복이며, 반복되는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싸울 가치가 없는 것들

당신이 매일 아침, 점심, 또는 저녁에 작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문제는 1만 5000일, 즉 40년의 결혼 생활 내내 되풀이될 것이다. 요리, 청소, 재정적 책임, 친밀한 접촉 빈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잘 해소되지 않으면 불화는 끊임없이 재발한다. 신중하게 목표를 정하고 밤새 노력하고 전념해야만 고의적인 외면으로부터 독버섯처럼 자라는 재난을 퇴치하고 무질서의 파도를 잠재워서 가정생활이(사회생활도 마찬가지다)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타락: 과오와 태만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어떤 것을 즉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잠시 생각하면서 다른 가능한 행동이나 사건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본인이 주장하는 믿음과 다르거나 반대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몇몇 현대 철학자는 ‘수행 모순’이라고 부른다.

고의적인 외면은 알아낼 능력이 충분하지만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탐사를 중단하는 것이다. 고의적인 외면은 종종 명백한 범죄가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장인데 경리부장이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고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런 행동을 책임을 져야 한다.

아마 당신은 좌절감이 점차 쌓이다가 마침내 참을 수 없이 짜증이 나고 삶이 불행하자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 원인을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가능성은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그렇게 작은 구멍에도 발을 잘못 들이면 추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위험하더라도 말하는 편이 나은 순간에도 문제는 안개 속에 묻힌다.

안개의 정체

이 모든 걸 감추는 안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당신의 감정과 동기 상태를 그때그때 알아차린 뒤 그걸 당신 자신과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거부하는 마음이다. 오랫동안 표현하지 않고 쌓아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때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결과물은 눈물이다. 눈물은 약함과 고통을 인정하다는 증거다.

우리가 희망을 품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은 진심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어떤 것에 다가가는 경험에서 대부분 나온다.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불안에 항상 시달리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널려 있어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 우리는 목적이 집중함으로써 참을 수 없는 혼돈을 억누를 수 있다.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열심히 추구한다 해도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표적에 눈길을 주지 않으면 명중시킬 수 없다. 표적을 겨누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조준한 뒤 빗맞혔을 때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발생하는 배움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노력해서 성공한다는 말은 어떤 것을 시도하고,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힘겹게 배우고, 다시 목표를 재조정하고, 그런 뒤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시도하고 실패하고 재조정하고를 반복한다는 의미이다. 실패에서 얻은 모든 배움은 때로 당신에게 다른 야망을 가지라고 조언한다(다른 게 더 쉬워서가 아니다. 당신에게 포기하거나 회피하라고 종용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당신이 찾는 것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에 없거나, 당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진실을 안개 속에 묻어두는 대신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라.** 물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까다로운 일이다. 첫째, 외로워서 생기는 분노나 고통, 사소한 것일지 모를 어떤 일에 대한 불안, 또한 부적절할 수도 있는 질투가 자기 자신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꽤 부끄러울 수 있다. 둘째, 저항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더라도 당신의 감정이 틀릴 수 있고,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을 조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불안 요소 중 하나다.

나는 배신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을 신뢰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손을 내민다. 그런 신뢰를 통해 당신과 나의 가장 좋은 면이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얼마 전부터 나를 무시했어”라고 말하지는 말자(적어도 그게 이상적이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외롭고 마음이 아팠어.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이 내가 바라는 만큼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부부로서 우리 관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 하지만 내가 가빈이 상해서 그렇게 상상한건지, 아니면 상황을 제대로 본 건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에게 비난하지 않고 요점을 이해시킬 수 있어 진실을 향한 진지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당신이 느꼈던 감정의 원인을 잘못 안 것이라면 당신은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당신 자신과 타인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당신의 미래에 지장을 주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 즉 안개를 걷어내는 것이고, 거기 숨어 있을 것 같은 날카로운 모서리가 진짜인지 환상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진실을 안개에 묻어두기보다는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나은 이유는 적어도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과 기억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동안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우리의 과거는 바람직한 경험을 되풀이하고 탐탁치 않은 경험은 차단하는 데 쓰여야 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뿐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별히 운이 나쁘지 않다면 성공을 거듭할 수 있다.

진심으로 원하고 요구한다면 얻을 것이다. 진심으로 찾는다면 발견할 것이다. 진심으로 들어가길 바라며 두드린다면 문이 열릴 것이다. 살다 보면 앞을 가로막는 것과 똑바로 맞서기 위하여 가진 걸 모두 쏟아 부어야 할 때가 있다. 거짓으로 대체하고 싶을 만큼 무서울지라도 진실을 피해 숨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법칙 4.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

당신의 가치를 끌어올려라

순교자가 되지는 마라. 다른 사람이 내 공을 가로챌 정도로 불평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당신이 현명하고 세심한 사람이라면, 그런 동료들 때문에 가치 있는 일들이 무수히 방치되고 있음 또한 알아챌 것이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대개 필요하지만 위험하고 어렵다.

직장을 포함해 어느 집단에서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무도 하지 않는 유용한 일을 찾아서 하라. 동료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라(하지만 당신의 삶을 망가뜨리지는 마라). 위험할 정도로 무질서하다면 체계를 세워라. 근무 시간에 일하는 척 대신 제대로 일하라. 마지막으로, 업계 또는 경쟁사들에 관해 더 많이 공부하라. 그러면 당신은 매우 가치 있는 사람, 핵심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고 인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선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보라. 신경 쓰이는 어떤 일이 있는데 당신이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면, 그 일을 해결해보라. 주어진 것 이상의 책임을 맡는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당신은 연봉 인상, 자율성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을 얻어 내기 위해 상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열 가지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일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를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물론이고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잊지 마라. 세상에는 믿음직스럽고 쓸모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아주 기뻐하며 손을 내미는 정말 좋은 사람이 드물지 않다. 이렇게 진정한 이타주의가 선사하는 인생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염세적인 지혜로 가장한 값싼 냉소주의에 빠지고 만다.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의미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 특별히 불운하지 않다면 사람은 자기가 성취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나는 그 일을 해냈어. 정말 유익한 일이었지. 쉽지 않지만 해낼 가치가 있었어.”

**어렵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제약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게임이 시작된다. 제약을 존재의 필수 요소이자 인생에서 가치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책임을 떠맡음으로써 심리적으로는 의미 있는 길을 발견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선하는 동시에 참을 수 없이 잘못된 현실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책임과 의미

하마르티아(hamartia, 비극적 결함), sin(죄악)

나는 병원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또는 원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해 결국 손에 넣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다. 어쨌든 겨냥하지 않으면 과녁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다 실수를 범했을 때보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때 더 속상해한다.

피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는 건 용기가 아니라 그에게 기본적으로 자멸적인 성향이 있고, 삶을 역겨워한다는 증거다(그 증거로 그는 어른이 되길 끊임없이 거부한다).

마찬가지로 목표는 없고 재능만 있는 스물다섯 살 젊은이의 매력적인 잠재성은 서른 살에는 애처로워 보이고, 마흔 살이 되면 완전히 만료된다. 여러분은 자신의 다층적인 잠재성을 희생해 실질적인 알맹이를 확보해야 한다. 목표를 세워라. 자신을 단련하라.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 과연 어떤 결과일까? 고통으로 가득하고 의미는 전혀 없는 삶이다. 거기에 지옥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다.

더 깊이 연구하고 이해할수록 아브라함 이야기는 내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 핵심에는 ‘비관’과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격려’가 묘하게 결합해 있다. 여기서 비관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도 인생은 힘들기 마련이다. 상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나타나 길을 가로막는다. 그렇다면 격려는 무엇일까? 살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더 강하고 유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기회가 온다. 상황에 제 필요에 따라 우리를 능력자로 변모시킬 때(이것이 바로 신의 뜻이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잠재성(어린 시절의 마법의 힘)이 밖으로 드러난다.

아버지를 구하라: 오시리스와 호루스

눈을 뜨고 있어야 할 때 눈감아버리겠다는 오시리스의 결심은 엄청난 대가를 불러왔다. 사악한 동생 세트에게 진압당한 것이다. 일단 제 기능을 하는 위계 구조가 확립되고 나면 권력과 지위를 불법으로 가로챌 기회가 열리고, 적합한 능력과 자격 대신 조작/사기/강압을 이용해 신분과 지배력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세력을 빛과 깨달음, 통찰과 자각의 적인 세트라는 신으로 개념화했다.

질서의 신 오시리스도 조각조각 부서질 수 있다. 이런 일은 개인, 가족, 도시, 국가에서 항상 일어난다. 사랑이 끝날 때, 경력이 단절될 때, 소중한 꿈이 날아갈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익숙했던 질서가 사라진 자리에는 체념, 불안, 불확실 절망이 들어찬다. 허무주의와 심연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등장해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삶의 가치들을 파괴한다. 결국 혼돈이 출현한다.

호루스가 가진 더욱 중요한 능력은 보고자 하는 ‘의지’이다. 이 의지는 대단한 용기로, 아무리 무서워 보이는 일이라도 알게 된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두렵거나 혐오스럽거나 경멸스러운 장애물이 자발적으로 맞서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말은 임상심리학자들에게는 금언과 같다. 필요한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자발적으로 맞설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정신을 차리고 용기와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에 정확히 맞춰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한 상대와 무모하게 충돌하는 건 피해야 한다.

도전을 감행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의미(단순한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것)을 알아보는 본능이 그 답을 준다. 시도하려는 일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지 않고 당신을 앞으로 이끄는가? 그 일이 관심을 끌되 당신을 압도하지는 않는가? 그로 인해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사라지는가? 그 일이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적에게 도움이 되는가? 의미는 책임과 직결된다. 악을 제압하라. 고통을 줄여라. 감당해야 할 부담, 수시로 변덕을 부리는 삶의 불공평과 잔인함에 굴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소망하면서 매 순간 당신 앞에 나타나는 가능성을 놓치지 마라.

호루스는 패배한 세트에게서 자신의 눈을 되찾고 그를 왕국에서 추방한다. 세트를 죽일 수는 없다. 세트를 죽일 수는 없다.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처럼 그도 영원하다. 모든 차원의 경험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악은 우리 내면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항상 싸워야 할 어떤 것(또는 어떤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악을 극복하고 추방하고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뒤에는 평화와 조화가 널리 퍼질 것이다.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세계와 맞붙어 싸우면서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때 당신은 더 큰 사람이 된다.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은 인간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과거의 위대한 조상들을 재현할 수도 있다.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 우리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다.

심연 속의 괴물이라는 개념은 어둠 속에서 순진한 먹잇감을 노리는 불멸의 맹수를 말한다. 이 까마득히 오래된 이미지는 개념적인 것이 인간 유전자에 암호화되기 시작한 뒤로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에 깊이 새겨졌다. 그건 단지 자연의 괴물일 뿐 아니라 문화의 폭력이고 개인의 악의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당신은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한다.

내가 되고자 하는 존재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것에 순간적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만 되면 인생은 정말 간단하겠지만,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처럼 내일의 당신이 있고 다음 주의 당신, 내년의 당신, 5년 뒤의 당신, 10년 뒤의 당신이 있으니, 가혹할지언정 당신은 모든 ‘당신들’을 고려해야 한다.

행복과 책임

결론적으로 여러 시간대에 우리의 삶을 최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행복일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바람직하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다. 행복이 찾아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하라(하지만 그 순간에 성급해지지 않도록 신중하라)

행복이 아니라면 무엇이 더 세련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라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미래를 바로잡을 수 있다. 또한 책임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 더 높은 선에 따라 믿음직하고 정직하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고 상상해보자. 최고선은 여러 시간 대에 걸쳐 존재하는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역할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것이다.

충동적인 쾌락처럼 달성도 긍정적인 감정을 낳는다. ‘정말로 믿음직스럽고 긍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올까?’ **바로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할 때다.**

책임이 없으면 행복은 없다. 가치가 있으며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목표가 없으면 긍정적인 감정은 없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시간을 인식하는 동물, 즉 반복적인 게임을 불가피하게 끊임없이 하고 있음을 아는 동물이다. 우리는 미래에 매여 있다.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다. 어떤 것에 매여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취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는 자발적으로 돌아서서 그것에 맞서는 것이다. 단기적이고 충동적인 목표를 버리고 더 큰 목표를 가져라. 그것이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더 많은 무게를 짊어져라

이 윤리는 명료하게 공식화되긴 어렵지만 우리가 하는 게임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은 짝을 매혹한다. 윤리적으로 행동할수록 우리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가족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윤리적으로 행동하리라 기대되는 경기자만이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는 위대한 경기자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의 행동을 모방하는 장치가 갖춰져 있다.

자기 자신을 배신할 때 치러야 할 대가가 가장 깊은 차원의 죄책감/부끄러움/불안이라면,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아서 생기는 혜택은 지속성 있는 의미다. 그것이 책임을 포기한 곳에 숨어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회다.

삶의 고통과 증오를 가라앉히는 해독제는 무엇일까? 각자에게 가능한 최고의 목표가 그것이다. 최고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남들이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

‘나는 결점투성이이지만, 적어도 이 일은 하고 있어. 적어도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 적어도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적어도 내가 지기로 한 짐을 지고, 비틀거리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진정한 자존심은 그렇게 형성된다.’

당신이 기꺼이 짊어진 책임에 비례하여 삶은 의미 있어진다. 이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용기를 주고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증오를 몰아내고 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세상은 엉망이야. 정말 괴롭기만 해.’ 하지만 당신은 환상이 깨진 그 순간을 운명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그 지표는 방치된 책임, 다시 말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내팽개쳐져 있지만 **누군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가리킨다.

신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칠십 오세였더라.

* 창세기 12장 1~4절

늦깍이 아브라함은, 돌려 말하지만 아버지 집에 너무 오래 붙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괜찮으니 신이 부른다면 꼭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자기가 너무 늦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여, 희망을 가져라). 하지만 신의 부름은 행복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기아와 전쟁, 가정불화 같은 피비린내나는 재앙을 부리는 소리다.

인생의 모험에 뛰어들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어진 책임을 짊어지고 당신 자신과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좌절과 실망, 동요를 겪기도 할 것이다. 그건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가 바로 당신을 이끌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다. 거기가 바로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한 줄로 정렬하는 곳이고, 깨져 흩어진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곳이며, 목적이 분명해지는 곳이고, 바르고 선한 것들이 패배할 곳이다. 거기가 바로 가치 있는 삶이 영원히 발견되는 곳이며, 당신 또한 의지만 있다면 그런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

법칙 5.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마라

일상을 가장한 병적인 질서

만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모욕적으로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끝도 없이 단어들을 금지해야 할까?

어리석고 혐오스러운 일을 억지로 해야 할 때는 누구든 의기소침해진다.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일을 맡으면 기가 죽고 의욕이 없어진다. 왜 그럴까? 당신의 양심이 온 힘을 다해 그 일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이라면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추구하려고 한다.

양심을 저버릴 때마다, 침묵할 때마다, 합리화를 할 때마다 저항은 약해지고 다음 일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특히 자리 다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손에 넣은 권력을 즐길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 감수해야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때 떨치고 일어나는 일이 현명하다. 그럴 능력이 완전히 시들어 소멸하기 전에 말이다.

질서 너머로 나아가는 것은 언제 행동해야 합당한지를 아는 것이다. 당신은 틀에 박힌 사회적 의무 대신 양심의 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당신이 용감하게 일어나 명령을 거부하려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옳은 일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정직하고 의미 있고 생산적인 삶(또한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이 살았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생겨난다. 구성원 각각이 잠들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귀 기울인다면, 집단의 규범이 필요성을 넘어 맹목적이고 위험해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라

아니면 유일하 대안은 절망, 부패, 허무주의에 찌든 삶이다. 그런 삶은 거짓말을 일삼고 원망에 사로잡힌 비참한 노예가 되어 전체주의적 유토피아에 생각 없이 복종하는 것이다. 대신에 당신이 위대한 과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비록 작은 톱니바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싫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다. 당신은 반격을 시도할 수 있고, 그 저항이 성공해 당신의 영혼, 당신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더 나은 직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직장에서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가?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나약하고 창피하게 느껴지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화풀이할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싶지 않고, 진절머리가 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머리를 식힌 뒤 전략을 잘 짜서 아닌 것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라(우리는 언제 반대해야 하는가? 처음 부당한 일을 겪을 때는 당신이 너무 충동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대를 참아야 한다. 두 번째로 경험했을 때도 그것이 전쟁을 치를 만큼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세 번째 반복되면 마침내 결정을 내릴 때다. 삼세판이라 하지 않던가.)

실행 가능한 일들.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신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획이다.

**당신은 해고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다른 회사를 찾아보고, 준비해서 지원하라. 당신의 상사에게 전할 확실하고 명료한 퇴사 사유도 잘 준비하라. 그리고 자의든 타의든 간에 회사를 관두는 것이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이직이 두려울 것이다.** 당연하다. 하지만 무엇과 비교해서 두려운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직장에 몇 년동안 더 머무르면서 비통하게 굽실거리는 나약하고 초라한 삶을 계속하는 것과 비교하면 무엇이 더 두려운가?

아무 데서도 당신을 원하지 않을까 봐 걱정스러운가? 나는 내담자들에게 성공할 확률이 50 대 1이라고 말해 허황된 기대를 바로잡는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겪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내해야 할 삶이 원래 그렇다. 가치를 판단하는 외적인 조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그런 결과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보험의 문제이고, 통계의 문제이고, 기준의 문제이지 당신에게 특별한 결점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신중하게 골라 150곳에 지원을 하면 그중 3~5곳에서 면접 기회를 준다. 당신은 재취업을 위해 능력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할 일을 이해하고, 당신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당신의 직무 능력이 조금 뒤처져 있을 때는 지금 있는 직장에서 업무 성과를 개선하려고 노력해보자. 이는 손해 보는 일이 아니며, 도리어 다른 곳에 취업될 가능성을 높여 준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컨데,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수십 년 동안 녹초가 되게 일하면서 서서히 질식하는 것은 진짜 최악일 수 있음을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

낮은 지위에 짜증을 내는 것과 양심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같지 않다.

양심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는 행위다. 비생산적이고 부조라하고 무의미한 일을 수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 미래의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기만에 빠지는 것, 폭정을 참고 다른 사람들이 고문과 학대로 괴로워하는 걸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양심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이다. 당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자신과 벌이는 게임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르고는 눈을 감아버렸다면, 이 또한 양심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신의 양심을 쿡쿡 찌르는 태도와 행동들 하나하나가 개인과 사회를 모두 지옥으로 만든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마라.

법칙 6.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잘못된 장소

하지만 강연자가 무대 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발휘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에게 레이저처럼 꽂힐 것이고, 단 한 사람도 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강연자는 모든 생각을 힘 있게 전달할 수 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실수를 저질러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난 50년간 권리에 관해서는 그토록 목소리를 높였으면서 젊은이들에게 책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요구를 통해 젊은이들의 삶의 의미가 생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와 정반대로 말해야 한다. 비극과 실망으로 가득한 인생에서 우리를 지탱해줄 수 있는 의미는 고결한 짐을 짊어지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신은 잠자고 있을 뿐

니체, ‘신은 죽었다’ 위대한 한 사상가의 견해는 서양 문명의 토대를 이루는 유대-그리스도교의 모든 가치가 위험할 정도로 경솔한 이성적 비판에 시달리고, 그 기초에 놓인 초월적이고 전능한 신의 존재가 치명적인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두려움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니체는 곧 모든 것이 무너져내려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재앙에 초래될 것이라 생각했다.

<즐거운 지식>에서 니체는 신을 “지금까지 세계에 존재했던 모든 것 중에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존재”로, 인간을 ‘살인자중의 살인자’로 묘사했다. <권력에의 의지>에서 니체는 이 살인 행위 때문에 20세기 이후에 두 가지 주요할 결과를 ‘예언’했다.

먼저 니체는 일신교 사상의 목표지향적인 구조와 그것이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세계 바깥으로 인생의 목적이 밀려나 불확실해짐에 따라 허무주의가 부상하여 우리의 실존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한 아버지를 대신해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니체와 도스토옙스키는 공산주의가 종교나 허무주의를 대신하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고 도덕적인 대안으로서 사람들을 매료시킬테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일 거라고 예견했다. 니체: “실은 누가 실험을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곳에서는 삶의 뿌리가 잘려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니체가 말한 사회주의는 나중에 영국, 스칸디나비아, 캐나다에서 유행한 비교적 유순한 사회주의, 즉 노동자 계급의 생활 조건 개선을 강조하는 종류가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생겨난 철저한 집산주의(collectivism)였다.

니체는 신이 죽은 이 세계의 ‘초인(위버멘쉬, 더 높은 인간)’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나타나야 사회가 ‘절망’과 ‘지나친 정치 이론화’라는 양쪽 암초를 향해 표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허무주의의 전체주의 대신 이 길을 택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로 이루어진 우주론을 만들어야 한다.

프로이트와 융: 경험의 한계, 수많은 인지 편향, 짧은 수명을 고려할 때 그 누구도 무에서 자기 자신을 창조할 천재성은 갖고 있지 않다.

니체의 주장에는 다른 문제들도 있다. 각 사람이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산다면 무엇이 우리를 통합시킬까? 초인들이 창조한 가치에 비슷한 점이 없다면, 초인들의 사회는 어떻게 끝없는 마찰을 피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런 초인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계몽주의는 현실이 객관적인 것들의 배타적 영역이라는 중요한 과학적 공리를 남겼다. 그 결과 주관적인 것에 해당하는 종교적 경험은 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물 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우리는 전체주의의 결과를 목격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피지배 계급의 상당수는 무능력하고 비양심적이고 우둔하고 방탕하고 권력을 쫓고 폭력적이고 화를 잘 내고 질투가 심했던 반면, 지배 계급의 상당수는 교양 있고 유능하고 창조적이고 지적이고 정직하고 친절했다. 소련에서 집산화에 반대하는 농민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탈쿨라크화 운동이 광적으로 진행될 때, 재산을 재분배한 사람은 원한과 질투에 사로 잡힌 살인자들이었고, 폭력적으로 쫓겨난 사람은 믿을 만하고 유능한 농부들이었다. 이른바 이 ‘행운이 재분배’로 인해 1930년대에 세계에서 비옥하기로 손꼽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대기근이 일어나 600만명이 숨졌다.

니체는 개인성을 열렬히 찬양했으므로, 더 높은 인간이 국가를 창조한다는 생각을 부조리하고 혐오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는 보수주의/사회주의/페미니즘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인종 및 젠더 사상/포스트모더니즘/환경주의 등의 각종 주의(ism)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이데올로기가 현실에 적용될 때 지금까지 쌓아 올린 지식은 힘을 잃고 거짓된 환상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데올로기 이론가는 처음에 몇몇 추상 개념을 선택하는데, 이 개념들은 해상도가 낮아 세계를 크고 무차별적인 덩어리들로 표현한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경제, 국가, 환경, 가장제, 민중, 부자, 빈민, 지배자, 피지배자 등이 그렇다. 단일한 용어로 묶어 부르면 실제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이 암암리에 극도로 단순화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가난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교육의 부재, 가족의 붕괴, 알코올 의존증, 범죄, 정신질환, 불운한 지리적 위치, 경제적 변화와 그로 인한 특정 직업군의 소멸.. 이데올로기 창시자는 세계를 크고 무차별적인 조각들로 나누고, 각각의 문제점(들)을 밝히고, 그럴듯한 악당을 내세운 뒤, 이를 설명해주는 원리나 작용력 몇 가지를 만들어낸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동기를 성, 즉 리비도(libido)로 환원시키려 했다. 어떻게 정의하든 생명의 복잡한 작동 원리를 풀어주는 열쇠로서 아주 중요한 생물적 요소다. 우리는 한 분야에서 성이 끼치는 영향을 진짜로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럴듯하게 꾸며낸 뒤 부풀릴 수도 있다.

마르크스도 그랬다. 그는 기본적으로 계급에 기초한 경제적 관점에서 인간을 설명하고, 역사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영원한 전쟁터로 설명했다. 마르크스주의의 알고리즘에 통과시키면 어떤 것이든 척척 설명이 된다. 부자가 부유한 것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것은 부자에게 착취당하기 때문이다. 모든 경제적 불평등은 바람직하지 않고 비생산적이며, 근본적으로 사회가 불공정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긋지긋한 파레토 분포는 부가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 소수에 속한 사람은 앞에 언급한 계급 안정성과 상관없이 꽤 심하게 변동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항상 소수, 그것도 극소수라는 사실은 우울하리만치 불변한다.

미셸 푸코나 자크 데리다는 마르크스주의에서 ‘경제‘를 ‘권력’으로 대체하고, 권력이 인간의 모든 행동 뒤에 숨어 동기를 부여하는 단 하나의 힘인 것처럼 제시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능력이 뒷받침된 권위, 호혜적인 태도 및 행동은 고려 대상에서 배제한다.

자신의 이론으로 일신교를 만드는 지식인들을 조심하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변수로 설명하는 것을 경계하라.** 물론 권력도 경제처럼 역사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질투/사랑/굶주림/성/협력/계시/분노/혐오/슬픔/불안/종교/자비/질병/기술/적의/우연도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중 어느 것도 다른 것으로 완벽하게 환원되지 않는다.하지만 이데올로기적 환원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단순성, 용이함, 그리고 진리에 통달했다는 환상을 맘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지 말자. 악당이나 악당 무리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 자신도 이데올로기를 휘두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다.

분노

분노는 어느 때 이는가? 개인적인 실패나 낮은 지위를 사회구조 탓으로 돌릴 때, 특히 그 구조 안에서 성공과 높은 지위를 거머쥔 사람들을 탓할 때 분개한다.

**어떤 집단도 죄가 있다고 미리 가정해서는 안 되고,** 그 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건 고소인이 악한 의도를 지녔다는 증표이며 사회적 재앙의 전조다.

분노하는 길에 들어선다는 건 쓰디쓴 원한을 자초하는 일이다. 내면의 적이 아니라 외부의 적을 확인했을 때 그리기 쉽다. 세계를 외부의 악마(부자, 남성)와 내부의 성인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은 독선적인 증오를 정당화하고 이데올로기 체제 그 자체에 도덕성을 부여한다.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덫이 있겠는가?

당신 자신에게서 세계가 잘못된 이유를 찾는 것이 도덕적으로 훨씬 타당하다.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응당 하는 일이다. 일단 남의 눈에서 티끌을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으면 무엇이 무엇이고, 누가 누구이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훨씬 명확해진다. 세상의 죄를 스스로 지는 것, 다시 말해 자신과 타인의 잘못에 책임을 지는 것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메시아의 길, 영웅의 삶과 겹친다.

‘가부장제’와 싸운다 ‘억압을 줄인다’ ‘평등을 장려한다’ ‘자본주의를 변화시킨다’ ‘환경을 지킨다’ ‘경쟁을 제거한다’ ‘정부를 줄인다’ 따위는 불가능하다. ‘모든 조직을 회사처럼 운영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현실은 대규모의 정교한 과정들과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는 탓에 포괄적이고 단일하게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20세기에 유행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이 신봉하는 공리들은 개종을 주도하는 자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신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신은 죽고, 이데올로기도 죽었다. 20세기의 피비린내나는 과잉에 스스로 질식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보내고, 더 작고 정확하게 정의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 문제를 정의할 때는 남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크기로 개념화하고, 문제를 개인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그 결과를 책임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겸손하라. 방을 청소하라. 가족을 보살펴라. 양심을 따르라. 바르게 살라. 생산적이고 흥미로운 일에 전념하라. 이것들을 잘 해냈을 때 더 큰 문제를 찾아 도전하라. 여기에서도 성공한다면 더 야심찬 계획으로 이동하라.

이 모든 과정에 꼭 필요한 출발점으로서,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법칙 7. 최소한 한 가지 일에 깊게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열과 압력의 가치

우리의 신경 구조는 실제로 위계적이다. 맨 밑에는 갈증, 굶주림, 분노, 슬픔, 의기양양함, 성욕 등 본능에 충실한 하인들이 있다. 이들은 쉽게 올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서로 전쟁을 벌인다. 통일된 정신의 회복력과 강인함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평정심을 잃은 사람은 내면에서 치고 올라오는 분노나 불안, 고통의 망령에 사로잡힌다.

확실한 목표는 세계를 제한하고 단순화하여 불확실/불안/부끄러움을 줄여주고, 스트레스가 야기하는 소모적인 심리적 요인들을 경감한다. 또한 심리적 우울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리 몸은 급속한 노화(체중 증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알츠하이머병)을 겪게 된다.

목표를 세우고 겨낭하라. 이 모든 것이 성숙하기 위한 훈련의 일부이자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일이다. 목표가 없으면 모든 것에 끌리고 흔들린다. 목표가 없으면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으며,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가치는 선택지에 위계를 매기고, 낮은 것을 희생하고 높은 것을 바라볼 때 생겨난다.

최악의 결정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중에서도 자신의 인격, 사랑, 가족, 우정,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 어느 영역에서라도 정원을 가꿔 보살필 줄 모르거나 그럴 뜻이 없는 사람은 그로 인해 반드시 고통을 받는다.

간혹 사람들은 굳은 의지와 필요한 교육을 갖추었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실패한다. 변호사로서 일을 잘하려면 언어 능력이 좋아야 하고, 목수로 성공하려면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한 법인데, 사람과 직업의 궁합이 좋지 않은 탓에 노력해도 목표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실패는 결의의 부족, 겉만 번지르르한 의미 없는 합리화, 책임 거부에서 비롯된다. 이런 실패는 좋을 게 하나 없다.**

냉소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나쁜 결정이 차고 넘친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그런 냉소를 초월한 사람(더 정확히 말해 냉소를 의심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믿을 만한 길잡이임을 깨달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최악의 결정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라고.

훈육과 통일성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한다. 아이는 다른 모든 충동보다 게임의 지시사항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규칙과 목표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법을 배운다. 개인성이 충동적인 만족을 위한 무제한의 선택이라면, 이를 개인성의 희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개인성의 발달이 훨씬 정확한 표현이다.

사회화가 잘 이루어진 아이라고 해서 공격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심리 상태에 고도로 능숙해지는 것이다. 그런 아이는 파괴적인 충동을 집중과 인내와 절제된 경쟁심으로 변화시켜 게임에서 성공한다. 타인과의 게임에서 아이는 협동, 경쟁, 승리를 경험한다. 이 준비 단계를 거쳐야 아이는 좀 더 영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성공한 어른이 될 수 있다.

게임이 없으면 평화는 오지 않고 혼돈만 계속된다. 게다가 게임이 존재하려면 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게임의 규칙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기꺼이 지킬 만한 제약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쨌든 그리스도교, 불교, 유교는 자의적인 규칙이나 터무니없는 미신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통합과 사회화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이유는 견습 기간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우선 아이가 게임의 규칙을 따라야 하듯이, 견습생은 전통/체계/도그마에 복종해야 한다. 견습 생활은 열과 압력이다(신참은 고참 아래서, 실습 나온 법대생은 현직 변호사 아래서, 수련의는 의사/간호사/환자 아래서 수련한다). 이 열과 압력의 목표는 미발달된 인격을 하나의 길에 예속시켜 미숙한 초심자를 뛰어난 장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견습 기간을 잘 마치고 장인이 되면 더 이상 도그마에 복종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인이 도그마를 지배한다. 장인은 도그마를 유지할 뿐 아니라 필요할 때는 변화시킬 책임을 떠맡는다. 그래서 한때 예속을 자처했던 장인은 이제 ‘정신’을 따르는 새로운 일원이 된다.

“바람(정신)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3장 8절”

장인은 자신의 인격과 그간 받아온 훈련이 조화롭게 통합되었음을 믿고, 직관으로 파악한 근본적인 패턴과 원리를 수정하거나 변경함으로써 한층 더 높은 통합을 이끌어낸다.

도그마와 정신

모세의 십계명

1.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최고의 통일성을 목표로 두라.

2. 우상을 섬기지 마라.

거짓 우상을 숭배하면 위험하다는 경고다.

3.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마라.

신의 이름을 빌려 고의로 죄악을 범히지 말라.

4.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있거나 성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5.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내며, 자식이 부모의 희생에 공경/존중/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말이다.

6.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금지함으로써 여러 세대에 걸친 반목의 순환에 빠지지 말라는 명령이다.

7. 간음하지 말라.

결혼 서약의 신성함을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으로, 다섯 번째 계명과 함께 가족의 안정과 가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8. 도둑질하지 말라.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라는 명령으로 문명 사회의 기초가 된다.

9. 이웃에 대해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법을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법의 온전함을 유지하라는 명령이고

10.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시기와 그로 인한 분노가 세상을 파괴하는 가장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십계명은 게임이 반복될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 규칙이다. 사회가 결정한 규칙, 전통에 의해 공식화된 규칙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그러면 규칙을 초월하는 어떤 통일성이 출현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28~34절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훈련을 통해 규칙을 익히고 충실히 따름으로써 통합을 이루는 동안, 그 사람은 동시에(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가장 높은 이상으로 인도되거나 그 이상을 모방한다. 그 ‘이상’은 ‘도덕적’ 이라는 말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요소이자 모든 규칙을 선하고 정의롭고 필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답변에 따르면, 그 단일한 ‘이상’은 (“유일한 주”) 철저히 체현된 뒤(“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기 자신과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도그마를 완벽히 숙달한 결과로서 정신이 출현한 존재를 나타낸다. 그 정신은 나중에 도그마가 될 것을 창조하는 힘이자 그런 오래된 전통을 거듭 초월하는 힘이다. 이런 이유로 견습 기간은 걸작의 완성으로 끝나는데, 걸작을 창조했다는 것은 필요한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을 분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까지 갖췄다는 의미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페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그들은 페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전통의 산물이자 전통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존재다.

한 가지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당신은 변할 것이다. 또한 한 때 여럿이었던 당신은 하나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 하나가 잘 성장했을 때 당신은 그저 희생/노력/집중을 통해 통일된 인격으로서 규율 또는 문명을 창자하고 파괴하고 변화시키는 존재가 된다. 이는 모두가 안심하고 따르는 질서, 혼돈으로부터 어렵게 얻어낸 질서를 뒷받침하는 진리의 말이다.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법칙 8.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보라.

방을 청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어렵지만 놀라울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다. 삶에서 하나라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미와 관계를 맺은 셈이다. 이는 신성함으로 갈 수 있는 초대장이며, 유년기의 불멸성 그리고 초월자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위엄에 다시 연결되는 행위다. 큰맘 먹고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우리는 우리 문명이 축적해온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 예술(그리고 문학과 인문학)을 공부한다. 예술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는가? 아주 좋은 생각이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이상하지만 비슷한 게 없을 정도로 다채로운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런 문화유산들을 길잡이로 활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시야가 더 넓어지고, 계획은 더 원대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더 현명하고 깊이 있게 고려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보게 될 것이다. 현재를 낳은 과거의 뿌리를 이해하고, 훨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또한 시간 관념이 발달해 미래를 더 구체적인 현실로 인식하고, 충동적인 즐거움에 이끌려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깊이, 위엄, 배려심이 증가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할 것이고, 그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생산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더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의 압력/인기/유행/이데올로기에 덜 휘둘릴 것이다.

예술품을 사라. 당신에게 말을 거는 작품을 구입하라. 진정한 예술품은 당신의 삶에 파고들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진정한 예술품은 초월자를 들여다보는 창이다.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 무지에 매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창이 필요하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이니요”라는 말은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산다. 우리는 문학으로 살고 예술로 산다. 아름다움이 없는 인생은 너무 짧고 암울하고 비극적이다.

기억과 환상

조바심은 내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었지만, 아름다움과 의미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고단하게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좁고 실용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보지만, 예술가의 지각을 공유함으로써 영감의 원천과 재결합하여 세계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다.

성인이 된 우리가 이미 단순화한 세계에서 다시 한번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기란 힘들고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제대로 산책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계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위엄과 경외를 놓치고 만다. 그 결과 우리 삶은 황량해지고 궁핍해진다.

우리가 아닌 땅, 우리가 모르는 땅,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땅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지식은 여러 층의 분석 단계, 즉 여러 번의 변형을 거치면서 점차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첫 단계는 순수한 행동, 즉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반사 행동이다.

예술가는 홀로 변경에 서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변환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진해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 뒤, 거기서 한 조각을 떼어내 이미지로 변환한다. 춤으로 변환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드러난 세계를 말이 아닌 몸동작으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연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할 수도 있다. 각본이나 소설을 쓰기도 한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뒤에 지식인이 나타나 철학과 비평의 이름으로 작품의 표현과 법칙을 추상화하고 조리 있게 설명한다.

우리는 이 그림들을 성스러운 물건처럼 대한다.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비로소 구체성을 띠는 한편, 더없이 풍부한 초월적인 힘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이 예술의 역할, 예술가의 역할이다.

방 하나

화려하게 치장하고 돋보이면 사자 떼가 달려든다. 그리고 사자는 언제나 존재한다.

예술은 장식이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정한 영감이 담긴 작품과 시기성이 농후한 작품이 불완전하게라도 구별되며, 중요하지 않은 것은 대개 우리와 멀어진다. 어떤 사람은 예술이란 예뻐야 하고, 노력하거나 도전하지 않아도 쉽게 감상할 수 있어야 하며, 장식적이어야 하고, 거실 가구와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술은 장식이 아니다.

예술은 탐험이다. 예술가는 사람들에게 보는 법을 가르친다. 예술을 접해본 사람은 대부분, 예를 들어 인상주의 작품은 누가 봐도 아름다우며 전통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은 19세기 후반에는 인상파 화가들만이 지각할 수 있었던 방식이었다. 우리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지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인상주의가 광고/영화/포스터/만화책/사진 등 모든 형태의 시각예술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한때 인상파 화가들만 이해할 수 있었던 빛의 아름다움을 본다. 하지만 인상파 화가들이 전통적인 파리의 살롱전에서 거부당한 뒤 1863년 낙선자전에서 그 그림들을 처음 전시했을 때 쏟아진 건 박수가 아니라 조소와 경멸이었다. 형태가 아니라 빛에 주목한다는 생각은 당시에 너무 파격적이어서 사람들이 감정적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화가는 사람들에게 보는 법을 가르친다. 세계를 인지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천재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세계를 인지하는 법을 배우고, 잃어버린 세계와 다시 연결되고,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말을 새기면 도움이 되는 것도 그런 심리적인 이유에서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3절-

아름다움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며, 무엇이 냉소주의를 영원히 막아주는지 상기시킨다. 아름다움을 목표로 똑바로 나아가게끔 우리에게 손짓한다. 아름다움은 더 작은 가치와 거 큰 가치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사랑, 유희, 용기, 감사, 일, 친구, 진리, 우아함, 희망, 미덕, 책임 등 많은 것이 인생을 살 만하게 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으뜸은 아름다움이다.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보라.

법칙 9.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

당신은 과거와 관계를 끝냈는가

가해자가 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중장기적인 게임을 올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심지어 당신 또한 그런 자신을 곁에 두고 싶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된다는 건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방치하는 행위다. 하지만 고통의 원인이 자기 배반이든 타인의 소행이든 현실에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재발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의도했든 아니든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에 떠오르면서 공포/수치심/죄책감이 함께 밀려든다면,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거나 구멍으로 떠밀렸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당신을 보호하도록 진화한 감정 체계는 당신이 빠졌든 떠밀렸든 신경 쓰지 않는다. 감정 체계는 오로지 당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공포가 끝없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과거에서 배워야 한다.

사람들은 과거의 끔찍한 일을 이해하기보다, 관심 밖으로 몰아내거나 다른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럴 만도 하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닥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다. 잘 알려진 심리학적 진실에 따르면, 과거에 겪은 위험하고 해로운 일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세계를 헤쳐 나가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 있는 곳을 알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가급적 완전한 이야기 형태로 정리되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성취나 사랑, 부 또는 권력의 획득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려는 곳에는 행운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높여주고 불운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춰주는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경험을 떠올리고 그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에 머물고, 기억에 잠기고,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냉소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거나 슬픈 일에 부딪혔을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스스로를 돌이켜보지 않는 자는 그 무지와 회피에 비례해서 고통받는다. 우리는 피하려고만 했던 과거를 받아들이고 잃어버린 기회들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 표적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실수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서, 그때 얻어야 했던 것을 지금 획득하고 기운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를 공포로 얼어붙게 하고 생각만 해도 역겨워지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또는 우리가 그런 일을 벌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원초적인 공포를 이해로 바꿔야 하는 무지막지한 운명을 짊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받는다.

같은 구덩이에 두 번 빠지지 마라.

더 이상 사촌 오빠를 힘세고 악의적인 가해자로, 자기 자신을 그런 힘에 무기력하게 당한 피해자로 보지 않게 되었다. 과거의 공포에 자발적으로 맞서고 트라우마가 훨씬 적은 인과적 설명을 발견하자, 마침내 그 기억과 관련된 공포와 수치심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다.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이야기의 힘은 이토록 강력하다.

하지만 어느 날 어떤 걸 의미하는 사건이 다른 알에는 아주 다른 걸 의미할 수 있다.

귀신에 홀리다

악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적을 인정하자 오랜 고통이 사라졌다. 이제 그는 주변에 널린 잠재적 위협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이해되지 않은 적의

명백히, 사람들이 나빴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은 불안/분노/복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기억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건들을 기억해내고 깊이 생각하기를 대체로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내담자는 살아온 인생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기들로 구분했고, 그런 뒤 각 시가를 규정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핵심 사건을 모두 떠올렸다. 어떤 일은 왜 그토록 엉망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려 했다. 특히 과거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들이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려 했다. 특히 과거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들이 왜 발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 다른 사람들의 동기, 시간과 장소의 특징을 면밀하게 평가했다. 또한 그 사건들이 좋은 나쁘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우리는 힘든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또는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따져보았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과거의 경험들이 인지와 행동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며 내담자의 자서전을 업데이트한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순진했다. 정작 자신은 정반대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그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선하다고 믿었다. 파괴 동기, 잔인성, 상해 욕구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잠재성을 현실로

직장에서 겪는 골치 아픈 문제, 연인이나 친구 간의 문제, 경제적/물질적인 생존과 관련된 문제. 한 가지 걱정거리에도 결정해야 할 일을 여럿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자발적인 의지다. 이때 의지를 마비시키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반면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하기는 힘들고 부담스럽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능동적으로 미래를 마주 본다. 우리는 미지의 잠재성을 마주하고, 현재 곧이어 과거가 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다.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인식하고 지금의 세계를 만든다.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 어쩌면 존재 그 자체에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는 다양한 전망, 여러 개의 있을 법한 현실과 대면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 복수의 가능성을 하나의 현실로 압축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계를 가능한 것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만든다.

이 능력과 함께 똑같이 중요한 능력이 있다. 복수의 미래를 하나의 현실로 바꾸는 데 우리의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선택의 ‘도덕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마음, 유혹에 빠지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을 똑바로 마주 보겠다는 마음, 자발적이고 용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에 기초한 행동이 앞으로 존재할 것을 모든 면에서 더 좋게 만든다. 다시 말해 가장 깊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가 마주한 잠재성으로부터 무서운 현실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좋은 현실이 나온다.

우리는 사람들(우리 자신을 포함하여)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좋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좋은 결정을 내린 사람이면 그 결정에서 나올지 모를 이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정직하게 자발적으로 노동을 했다면 그 결실을 획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자기 자신과 타인, 아이의 어른을 포함하여 사람은 누구나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선택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에 반대하며, 개인의 행동/자유의지/책임을 부정한다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구원의 말씀

쌍을 이루는 두 개념을 더 깊이 살펴보자. 첫째, 우리는 모두 창조 그 자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둘째, 선택의 도덕성이 그 창조물의 품질을 결정한다. 이 두 개념은 우리의 사적/공적 관계에 무수히 반영된다. 또한 우리 문화의 근저에 놓은 이야기들 속에 요약된 형태로 담겨 있다.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그 이야기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통해 우리의 기본적은 행동 패턴을 증류하여 얻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무슨 일이 왜 일어 났는지를 최대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알아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요점만 전달하는 사람에게 빠진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심연은 무서운 것, 인간의 죽음과 나약함을 숙고할 때 응시하게 되는 것, 희망을 집어삼키는 것이다.

창세기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한다. 모든 날의 신의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한다(“또한 oo이라 부르시니”라는 말로 명명을 강조한다) 7일에 걸친 천지창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5절

하나님은 그분 자신, 그분의 창조 행위, 최초의 창조물을 보여준 직후에(따라서 우리가 그 분을 알게 된 거의 직후에) 인간을 창조한다. 하나남의 창조에는 즉시성 외에도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는 점이다. 둘째,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점이다(남녀 모두를 똑같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니 매우 현대적이면서 평등주의적이다) 셋째, 창조한 인간이 다른 창조물처럼 보시기에 좋았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인간이 신과 유사한 운명, 불가피성, 또는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다.

어떤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해 신이 사용하는 도구는 말씀, 곧 진리의 말이다. 하지만 말씀이 있으려면 모든 두려움이 잠재해 있는 미지의 가능성과 대면할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때 비로소 현실이 생겨난다. 그리고 진리와 용기는 최종적으로 사랑이라는 더 큰 원리에 포섭되어야 한다. 사랑은 그 모든 취약함/가혹함/배신에도 불구하고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에게 가장 유익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지향하는 마음이다.

창조한 것이 보기에 좋았다는 말에는 그분의 창조 행위에 진리, 용기, 사랑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창조 행위를 통해 가능성의 영역에서 출현하는 모든 것은, 그 창조의 동기가 좋은 한에서는 반드시 좋다. 나는 모든 철학과 종교를 살펴봐도 다음 주장보다 더 대범한 주장은 없다고 믿는다. “**믿고 행동하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훨씬 나중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주장이 있다.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인데,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인생을 완성하고 더 나아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을 발견할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9~13절

무심코 하는 말이 아니다. 불로소득이나 선물을 요구하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 소원이나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다(이 때문에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그리스도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진실로 구함’의 문제다. 소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남김없이 포기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진실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걸 가질 수 없다니’라며 억울해하는 어린애처럼 굴면 안 된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건, 미처 끝내지 못한 것으로 돌아가 이제 그걸 끝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뜻이다. 또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안다는 뜻이다. 그것은 신에게서 나올 만한 것이어야 한다. 달리 구할 수 있다면 왜 신에게 구하겠는가?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회피는 더 많은 거짓말, 더 많은 회피를 부른다. 한 번의 자기기만은 또 다른 거짓을 불러내 원래의 거짓된 믿음을 보강한다. 파탄이 난 관계를 방치하면 당신의 평판은 엉망이 되고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무너져 더 나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을 끌어내린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의지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실수의 원천은 더욱 커진다.

당신이 틀렸다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솔직히 고백하고 후회하고 변해야 한다. 그런 뒤 겸손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당신은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고, 또 이르러야 한다. 삶의 모든 두려움과 마주할 용기를 끌어 모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의 결과는 너무 끔찍하다.

치유의 힘은 그저 감정을 표출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그 힘은 정교한 인과론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온다. 내가 왜 위기에 처했을까? 나를 위험하게 만든 외부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고 있었기에 그토록 취약했을까? 부정적인 사건들까지 고려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면 내가 따르는 가치의 위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나의 낡은 지도를 얼마다 고통스럽게 많이 찢어내고 태워야 내 모든 경험을 설명해줄 새로운 지도를 만들 수 있을까? 나에게는 없어져야 할 것을 버리고 더 현명한 인격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까? 당신의 상당 부분은 당신이 세운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정이 당신의 세계를 조작한다. 당신은 씁쓸한 진실을 피하지 많고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를 명확히,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기억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고통에서 헤어날 가능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

법칙 10.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계획하고 관리하라.

참을 수 없는 데이트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팔짱을 끼거나 상대의 무릎에 손을 올려보는 거예요. 두 분은 서로에게 화가 나 있어요.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시도해보세요. 잘해야 한다거나 분노를 내려놓아야 한다거나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데이트는 큐피드가 공짜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 두 분이 배워야 하는 기술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아주 적은 시간을 내어 당신의 기술, 유혹, 대화, 성생활을 개선하는 데 쓰기가 그렇게 힘들단 말인가? 비참한 데이트를 열다섯 번 한 뒤에 꽤 괜찮은 데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데? 3000번 중 열 다섯 번이면, 앞으로 당신이 배우자와 함께할 낭만적인 시간의 0.5퍼센트다. 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전해볼 만한 일 아닌가? 왜 당신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큼 복잡한 일이 헌신, 연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잘 돌아갈 것이라고 가정하는가?

만일 운이 좋다면 당신은 처음 상대방에게 끌렸을 때 타오르던 마음의 불꽃, 당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을 때 당신의 삶을 비추던 불꽃을 되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사랑의 마법에 빠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한동안 두 사람은 과거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서로의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지만, 어느덧 마법은 조용히 사라진다. 대신 두 사람은 그 시절의 경험을 선물로 받는다. 두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다. 사랑은 운명이 건네주는 선물에서 시작되지만, 그로부터 진실한 관계가 피어올라 지속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

관계의 기반

배우자와 낭만을 오래 유지하려면 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전략이 있어야 한다. 어떤 전략이든 그 성공은 협상 능력에 달려 있다. 협상을 하려면 당신과 협상 대상자는 먼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해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내고 논의하는 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이 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정확히 언제 그걸 얻지 못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당신의 욕구를 애매하고 불분명하게 남겨둘지 모른다. 하지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겨누지 못한다면 그것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배우자가 당신에 관해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당신의 내밀한 욕구에 관해서는 더욱더 모를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당신의 불행한 배우자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추측해야 하고, 추측을 잘못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응징을 당할 것이다.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질지 당연히 알고 있을 거야.’ 이는 행복한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접근법이 아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당신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 언어의 형태로 상대방에게 알린다면, 그 순간 당신은 그에게 위험한 힘을 부여하게 된다. 당신이 신뢰하는 그 사람은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위치에 서고, 동시에 당신은 약자의 위치에 선다. 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거나, 그런 걸 원한다고 창피를 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순진함을 초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상처받고 배신당할 수 있음을 안다. 그러니 왜 누군가를 끌어들여 상처 받을 위험을 자초하겠는가? 순진함이 냉소주의로 바뀌는 이유는 그런 배신을 막기 위함이며, 많은 사람이 냉소가 순진함보다 낫다고 진심으로 말한다. 하지만 순진함을 냉소로 대체하는 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신뢰는 냉소를 능가하며, 진정한 신뢰는 순진함이 아니다. 순진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신뢰는 일종의 용기다. 항상 배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식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실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없다.

낭만은 신뢰를 필요로 하며, 신뢰가 깊을수록 낭만도 깊어진다. 하지만 신뢰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배우자를 신뢰하는 용기 외에도 필요조건이 따른다. 그중 첫 번째가 진실이다.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행동이나 침묵으로 당신을 배신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지 못한다. 따라서 결혼의 낭만적인 요소를 지켜주는 첫 번째 맹세는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혼자 살기에 인생은 너무 고되다. 부부 사이에 진실만을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려 노력한다면, 풍랑이 일어 당신의 배가 침몰한 위기를 맞았을 때 배우자에게 기댈 수 있다.

촛불 속의 그리스도

<창세기> 2장 1~22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 이브를 창조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여성의 몸에서 남성이 태어나는 게 순서일텐데,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에는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 있다. 이는 신이 창조한 통일체가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양쪽이 서로 결합하기 전에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오래전부터 제 2의 아담으로 여겨져왔다. 신이 양성을 분리하기 전에 최초의 아담에게서 자웅동체성을 부여했다는 견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정신적 완벽성은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가 이상적으로 균형을 이룬 결과라는 견해가 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부부는 진실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한다는 오래된 개념과 부합한다.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깨달음의 원리를 따르기로 맹세한다. 그 상황에서는 한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둘 다 바람직한 미래를 지향하기로 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아가는 최고의 길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당신이 이제 막 그런 의식에 참여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의 참여는 무엇을 의미할까? 방금 행동으로 나타낸 그 생각을 **믿는다**는 뜻인가?

그럼에도 당신의 낭만적인 부분은 영혼의 단짝을 갈망한다.

최초의 번식은 세포분열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몸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두 생물이 몸을 합쳐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키는 것이 결함을 제거하는 데 더 유리했다.

오늘날 미성숙하고 순진한 많은 사람이 결혼 제도에 냉소적이지만, 이 제도에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유용한 측면이 있다. 결혼은 일종의 서약이다. 신랑 신부는 남들 앞에서 한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다음과 같이 위협하는 말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최적의 상대는 찾기보다는 만드는 것이다.**

인생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힘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고단하다. 두 사람이 함께 하면 인생이 너 나을 수 있지만(지금까지 말했듯, 그게 우리의 희망이자 가능성이다) 둘이 있어도 힘든 순간은 여지없이 찾아온다. 따라서 부부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동의, 진실한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사회적 존재에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상황이 있다. 폭정(하고 싶은 대로 한다), 노예(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한다), 협상이 그것이다. 폭정은 지배당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안 좋지만 폭군에게도 좋지 않다. 폭군에게 왕으로서의 고상함은 없고 냉소, 잔인성, 무절제한 분노와 충동만 있기 때문이다. 노예는 비참하고 불행하고 원통하다. 노예는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폭군에게 복수하려 하고, 폭군은 온갖 저주와 상해에 시달리는 신세가 된다. 그런데도 폭군이 되고 싶다면 이것을 기억해라. 노예는 비록 하잘것없고 의미 없는 복수일지라도 기회가 오면 반드시 감행할 것이다.

협정, 폭정, 노예

“잘 모르겠어”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그게 뭔지 몰라서 하는 말일 수 있지만, 대개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리킨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 이런 반응은 종종 노골적인 짜증이나 화를 동반하여 질문자의 입을 다물게 한다. 또 종종 “내가 스스로 뭘 원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의지도 없다는데, 이렇게 간섭하다니 참을 수 없이 무례하군. 당신 때문에 내 문제를 조용히 생각해볼 수 없어”라는 뜻이다.

눈물은 슬픔이나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여움이다. 당신이 추궁하며 벽으로 몰고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동시에 얼굴이 빨개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중이다(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꽤 일반적인 징표다) 눈물은 회피의 최후 방어선일 때가 많아 눈물을 돌파하면 진정한 대화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노여움(첫 번째 방어선)으로 발생하는 모욕과 상처, 눈물(두 번째 방어선)이 유발하는 연민과 동정심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당신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숨겨진 본성(완고함, 가혹함, 냉정함)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친절하다’는 ‘옳다’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

아이는 모방의 천재다. 아이들은 언어를 사용하기 한참 전에도 많은 것을 은연중에 배우고, 좋은 것과 함께 나쁜 것을 모방한다.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18절

물론 우리는 희망에 이끌려 협상의 고통을 감내하지만, 희망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다. 희망과 함께 절박함이 필요하다. 이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구절이 유익하다. 이 맹세의 핵심은 서로를 구원해줄 수 있는건 둘뿐이라는 점, 두 사람이 함께해야 이 지상에서 구원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다. 건강만 버텨준다면 당신은 앞으로 60년 동안 약속의 땅을 찾아 사막을 건너는 모세처럼 모래밭 길을 걸을 것이다. 평화가 오기까지 산더미처럼 쌓은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진정한 어른이 되어 마치 당신의 목숨, 아니 영혼을 걸고 평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비참할 정도로 고생한다)

하지만 당신이 화를 내고 울다가 결국 헤어진다면 실패는 당신을 유령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당신의 고질적인 문제는 그대로이고 협상 기술은 여전히 형편없을 테니, 다음에 새롭게 시작한 관계에서도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상을 성사시키고 나면 멋진 미래와 성공이 따라온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고 유지하는 삶** 말이다. 이렇게 역경을 딛고 마침내 달성한 평화로운 결혼 생활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값진 성취지만 쉽지 않아서 자주 보기 힘들다. 인생에서 그 정도로 큰 성취를 꼽자면 네 가지가 될 것이다. 노력해서 건실한 결혼 생활을 이뤘다면, 이것이 **첫 번째** 성취다. 그때 우리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집, 정직하고 즐거운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제 당신이 아이를 낳았다면, 이것이 **두 번째** 성취다. 당신이 운이 좋고 신중하다면, 아이들은 훌륭하게 잘 자란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당신의 손자 손녀들이 그 빈자리를 새롭게 채운다. 그럼에도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법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듯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손주도 안으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것들을 놓치면 인생이 아주 위험해진다.

아무도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젊은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대놓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문화에서 금기시되고 있다. 대신 인생의 주된 만족은 경력에서 찾아야 한다(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 경력이 아니라 직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는 참으로 이상한 주장이 퍼져 있다. 하지만 임상에서나 대학에서나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스물아홉, 서른다섯, 심지어 마흔이 될 때까지도 아이를 낳는 데 따르는 희생은 그 무엇도 치르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여성은 흔치 않았다.

정말 말리고 싶은 불행한 길이 하나 있다. 이 책을 읽는 여성들이 귀 기울이기 바란다(현명한 남자친구와 남친도 똑같이 주목하라). 바로 스물아홉 살이나 서른 살에 아이를 갖겠다고 결심한 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결심은 정말 권하고 싶지 않다. 좌절감을 회복할 수 없다. 아이를 가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다. 어리고 현명함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임신은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한다. 임신은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30퍼센트에 달하는 부부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끼고서 혼외정사로 욕구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을 품기 시작한다. 그 방법을 고려하거나 이미 채택한 내담자에게 나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한다. 양육권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이 질색을 하고서 차라리 암에 걸리는 편이 낫다고 말하는 걸 나는 여러 번 보았다. 법원에 발목이 잡히면, 농담이 아니고 정말 수시로 죽고 싶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불륜’을 저지른 결과다. 하지만 당신이 착각하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진짜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는 과정에서 당신은 배우자의 최악의 모습을 자주 본다. 반면 불륜 상대하고는 좋은 것만 느낀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고, 밤을 짜릿하게 보내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낭만적인 시간을 향유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지속적인 관계로 변하는 순간, 대부분은 결혼 생활을 망치고 만다. 불륜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주변 사람사람들에게 잔인한 상처만 남긴다. 특히 아이들, 당신이 가장 헌신해야 할 어린 존재들에게 더욱 잔인하다.

결혼과 가족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사회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최선일 수 없다. 가끔 우리는 병적으로 폭력적인 사람, 구제 불능의 타고난 거짓말쟁이, 범죄자, 알코올의존자, 가학성애자와 결혼한다. 그럴 때는 ‘탈출’해야 한다. 그건 뒷문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은 허리케인급 재난 상황에서는 그 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결혼하지 말고 함께 살면 어떨까? 서로 한번 시험해보는 거야.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어?” 하지만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고 누군가를 받아들여 함께 산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당장은 만족스러워. 그리고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우린 바로 결혼할 수도 있을거야. 하지만 세상의 관습은 신경 쓰지 말고, 언제든 더 좋은 상대가 있으면 바꿀 권리를 계속 남겨두자.’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남녀가 헤어지는 비율은 결혼한 부부의 이혼율보다 상당히 높다. 게다가 동거하다가 결혼을 한 경우 이혼할 확률은 애초에 동거하지 않고 결혼했을 때 이혼할 확률보다 낮기는 거녕 훨씬 높다. 그러니 서로를 시험한다는 생각은 유혹적인 말이자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외부모(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랄 때 훨씬 더 불리하다. 따라서 나는 동거를 정당한 사회적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도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기회는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다.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대략 2~3년이 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사람인지를 확인하기까지 다시 2~3년이 걸린다. 그러면 5년이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가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결혼, 아이 등)은 대부분 대략 20세~35세 사이에 몰려 있다. 그렇다면 5년 터울로 좋은 기회가 몇 번 오겠는가? 세 번 ,운이 좋으면 네 번이다.

그래서 당신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협상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다. 그러지 못했을 때 지옥에 펼쳐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 또는 직장에 임하는 태도도 더욱 단단해진다. 이것이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네 가지 성취 중 **세 번째**다(행운이 따르고 강인한 정신을 갖췄다면, 눈 깜짝할 새에 이루리라.) 가장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생산적은 조화를 이루면서 얻은 지혜의 일부가 일하는 공간에서도 발휘되면서 당신은 존경받는 멘토, 도움이 되는 동료, 믿음직스러운 부하로 인정받는다. 또한 당신은 가정과 직장 바깥에서 보내는 여가 시간을 의미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데 쓸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 성취 중 **네 번째**이며, 다른 성취와 마찬가지로 더 커질 수 있다. 당신은 협상과 희생에 더 능숙해져서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테고,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류의 정신이 이바지할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성 간의 낭만이란 신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험, 기쁨, 친밀함, 짜릿함이다. 당신은 그런 낭만을 원한다. 삶의 기쁨은 드물고 귀하니, 정당한 이유 없이 낭만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과 가정을 꾸렸다면, 당신은 ‘좋아함’과 ‘사랑함’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협상을 벌여야 한다.

가사 관리

당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앞으로도 계속 좋은 감정을 유지하면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누가 무엇을 할지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그것이 성 역할을 대신한다. 누가 침대를 정돈할까? 그 일을 언제 할까? 얼마나 완벽하게 정돈해야 둘 다 만족할까?

결론을 말하자면, 모든 가사 관리는 확실한 토대 위에 놓여야 한다.

다시 말해 싸움의 목표는 평화다. 평화는 협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크고 심각한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 일주일에 90분씩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내담자의 결혼 생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때,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주목한다 나는 휴가, 집안 행사, 특별한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바로잡아야 할 것은 일상적인 일들이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나갈 준비를 하고, 아침저녁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데 하루에 5시간 소요되다. 일주일로 치면 35시간인데, 이는 주 노동시간과 같다. 이 시간을 노려라.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라. 이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아침에 깨어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식사하는 동안 게임에 한눈팔지 말고 정중하고 세심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관심을 보인다면 어떨까? 유쾌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당신들이 함께하는 평범한 일들, 매일 하는 일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이룬다. 따라서 그 일들을 바로잡는다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낭만적인 관계가 유지되려면 먼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에 대해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타인이 있어야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결혼이 좋은 이유이기도 하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제정신이 아닌 부분이 절반쯤 있고,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는 술을 마시고 있거나 마실 것 같은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도 알코올의존자가 되지 않으니 서로에게 유익하다.

우리의 독특한 성향은 어느 정도 무작위로 분포하기 때문에 당신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약한 면에서 강점을 보이는 사람이나 자신과 반대인 사람과 결합하게 된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두 사람이 결합해서 원래의 존재를 재창조할 때, 당신은 합리적이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 태어날 기회를 갖는다.

두 사람의 역할을 결합하는 과정은 대부분 대화와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연륜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심각한 하자가 하나쯤 있다는 걸 안다. 반면에 아직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어딘가에 완벽한 사람이 있다는 가정이다. 심지어 당신은 그 완벽하다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 콩깍지가 씌여 어리석고 열렬한 사랑을 나눈다(어리석은 것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투사한 완벽한 상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럴 때 사랑의 진짜 대상이 누구인지 매우 혼란스럽다). 두 번째는 당신에게 완벽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가정이다.** 이 두 가정 때문에 당신은 낭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실패한다. 가정이 둘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심각한 결과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사귀자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아이고 이런! 당신은 눈이 멀었거나 절박하거나 나처럼 하자가 있군요!’

그러니 배우자와 모든 것에 관해 대화하라. 물론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결국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어렵사리 평화를 이룩했다면 감사하라. 둘이 모이면 반드시 싸우는 법이니 말이다.

우리의 종착지, 낭만

일반적인 성인 부부(직업과 아이들이 있고, 우리가 방금 논의한 대로 가사를 관리하고, 그에 딸린 모든 책임과 걱정을 짊어진 부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 드물게는 세 번가량 섹스를 한다. 그 정도 횟수라면 두 사람 모두 불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더 좋지만, 전혀 없는 것보다는 한 번이 훨씬 좋다. 섹스가 없으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학대하고, 다른 쪽이 복종하는 것과 같다.

**데이터에는 짜릿한 모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화 속에서나 그럴 뿐이다. 현실에서는 인터넷 데이팅사이트, 문자 메시지 교환, 그리고 카페/레스토랑/호프집에서의 어색한 첫 만남이 데이트의 시작이다. 독신자는 외롭고 허전하기 때문에 데이트에 몰두할 것이다. 하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데이트를 위해 당신의 생활 안에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돈을 쓰고, 괜찮은 데이트 상대를 찾고, 왕자를 발견하기 위해(또는 공주를 발견하기 위해) 수많은 개구리와 키스를 해야 한다.**

‘내가 과거에 낭만적으로 끌렸던 이 사람과 잠시 시간을 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길 바란다. 샤워를 하는 건 꽤 좋은 생각이다. 살짝 립스틱을 바르거나 가볍게 향수를 뿌리는 것도 좋다. 야한 옷도 괜찮으리라. 당신이 남자라면 아내에게 란제리를 사주고, 여자라면 용기 내어 입어보라. 당신이 남자가면 에로틱하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은 옷을 파는 남성용품점에 가보라. 너무 저속해서 스스로에게 민망한 옷이 아닌, 적당히 섹시한 옷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모든 용기를 발휘했을 때 한두 마디 칭찬을 건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당신이 자신감을 높이고 싶다면 은은하고 멋진 조명을 준비하라. 이때 따라야 할 법칙이 있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바라는 일을 그가 계속해주실 원한다면, 절대 그의 행동을 비난하지 마라. 특히 의무감을 뛰어넘는 진정한 용기를 발휘했다면 더더욱 비난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한다. 그게 무엇인지 둘 다 솔직하게 말해야 서로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데이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라. 전문가가 될 때까지 계속하라. 협상하고 실행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배우자에게 품위 있게 그 비밀을 알려라. 배우자 아니면 누구에게 그걸 말하겠는가? 결혼 서약을 지키고 정직한 협상에 모든 걸 걸어라. 배우자가 모른다고 핑계 대거나 대화를 거절하며 당신을 뿌리치지 못하게 하라. 순진함을 버려라.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람이 저절로 유지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집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두 사람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배하고, 폭군이나 노예가 되지 마라. 침대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만족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라. 그 일을 해냈을 때 어쩌면 당신은 인생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당신 곁에 평생의 친구이자 동지를 둘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에겐 진실한 관계가 필요하다. 힘들고 고된 시간을 늘 있으므로, 그와 반대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러지 않으면 삶에 절망이 깃들어 떠나지 않는다.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계획하고 관리하라.**

법칙 11. 분개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이야기는 중요하다

당신이 분개하고 거짓되고 교만한 데는 이유가 있다. 불안, 의심, 수치심, 고통, 질병, 양심의 가책, 영혼을 짓누르는 슬픔, 좌절된 꿈과 실망,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현실, 굴종을 강요하는 사회적 압제, 죽음에 이르는 노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타락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심지어 희망 그 차체마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타락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다. 그런 어둠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동기가 당신을 악으로 끌어들이는지 이해해야 한다. 분개, 거짓, 교만은 악의 구조를 분해할 때 어김없이 만나게 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다.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현실이란 무엇인가? 현실은 살아 있고 깨어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대상인 동시에 주관적 존재의 내면에 있는 꿈, 감각, 경험, 감정, 충동, 환상 등이 존재하는 곳이다. 세계는 개인의 의식 속에서 명백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와 정면으로 만난다)

잠재성의 영역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곳은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의 영역이며,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당신이 잠에서 깼을 때 씨름하는 미래는 좋은 것과 무섭고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이 한데 뒤섞여 있는 미지의 세계다. 따라서 **잠재적인 것**은 단순하고 물리적인 논리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잠재성은 희극이면서 비극일 수 있고, 선이면서 악일 수 있으며, 동시에 양쪽 다 일수 있는 모든 것이다. **무엇이 존재하는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죽은 과거다.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가?** 살아 있는 의식이 광활한 가능성과 결합할 때 새로운 모험이 펼쳐지고 새로운 존재가 등장한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실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가능성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내가 아는 대답은, 무엇이 존재하고 그와 동시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로 여기고,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자신의 무대가 펼쳐질 곳),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래야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튀어오르는 가능성으로부터 현실을 창조해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할 때, 그드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까지 묘사한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야기가 펼쳐진다(그런 묘사를 잘할수록, 당신의 설명은 더 이야기처럼 들린다).

내가 아는 한, 과학적 견해 역시 이야기에 속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신중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연장하고, 부를 증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흘러가는 이야기다.

우리의 본능은 원소 주기율표에 적합하지 않다. 절대 아니다. 우리가 주기율표를 알아낸 지는 고작 몇백 년 밖에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게 주기율표는 본능적으로 흥미롭지 않다. 거기에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정반대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즉시 흥미가 솟구친다. 심지어 주기율표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업적과 난제가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 이는 우리의 경험에 공통적인 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며, 서로 소통하지도 못할 것이다.

인간 극장의 영원한 등장인물

혼돈의 용

우리는 두려움을 학습할 장비를 갖추고 태어날 뿐 아니라 두려움 자체를 갖고 태어난다. 어떤 정신적/심리적 힘들은 포식자처럼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데, 이 힘들이 포식자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몰아가는 악의가 대표적이다. 또한 악은 복수와 약탈과 탐욕이 판치는 전쟁을 일으키고, 순수하게 재미를 목적으로 하는 살인과 파괴를 부추긴다. 악의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도 있다. 다른 어떤 용보다 거대한 이 용을 지배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성취다.

우리의 신경 체계는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게끔 이루어져 있다. 시상하부라 불리는 오래된 뇌 영역은 위험과 잠재성을 개념화할 때 기본적인 감정 반응을 조절한다. 시상하부의 두 모듈 중 하나는 번식(성적 흥분과 행동)과 자기 보호(굶주림, 갈증 그리고 위험 앞에서의 방어적 공격성)를 담당하고 나머지 하나는 탐험을 담당한다. 먼저 시상하부의 절반은 기복적인 욕구를 누그러뜨리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과거에 탐험했던 것을 다시 사용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공격에 대비해 우리를 미리 준비시킨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에게 항상 묻는다. 저 바깥에 뭐가 있을까? 그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얼마나 위험할까? 그것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을까? 그러므로 그건 어떤 이야기일까? 위험과 희망이 모두 잠들어 있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밝혀내라.

자연: 창조의 파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사람들이 있으며 눈길과 손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육지의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대양의 아름다움과 불명성과 거대함은 전율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자연에는 파괴, 질병, 고통, 죽음 같은 아주 무서운 것들이 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불행한 환경에서 벗어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하겠다고 다짐한다. 이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은 그렇게 학대를 당했음에도 스스로 사랑받은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 발걸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오랫동안 힘든 훈련을 거친다. 그런 희생이 미래와 협상하고 거래하는 능력, 미래에 대비하는 능력과 맞물릴 때 우리는 위대한 보물을 발견한다. 당신은 충동적인 만족을 접는다. 지금 당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리하여 결국 가치 있는 것을 얻는다. 당신은 파티와 안락한 시간을 포기한다. 대신 당신은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집중한다. 그러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점점 줄어든다. 당신은 적절한 희생을 통해 기른 힘을 발휘해 더 좋은 보수를 받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다. 우리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 현실의 잠재된 구도와 협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한다.

당신 아이의 인생에 악의 여왕을 초대하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 아이는 온실의 화초처럼 약하게 자란다. 당신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갖 대책을 세워도 악의 여왕은 아이 앞에 나타난다.

나는 내담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통화가 무난하다고 제안했고, 만일 대화가 나쁜 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전화를 끊으라고 권고했다. 그녀는 끔찍한 자연이 그녀 앞에 던질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을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마주할 수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았는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에서처럼 내담자의 가족은 악의 여왕, 무시무시한 자연을 아이의 인생에 초대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내담자는 삶의 기본적인 가혹함에 완전히 무방비했다. 그 결과 악의 여왕은 의붓어머니 형태로 사춘기에 나타났고, 더 나아가 성인으로서 책임과 생존의 가혹한 의미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으로 나타났다.

문화: 안전과 폭정

지혜로운 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회구조의 결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부당함과 불필요한 고통을 보지 못한다. 반대로 권위적인 폭군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잘 부서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묶어주고 혼돈으로부터 보호해주며 무질서를 막아주는 이 구조들을 고마워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흔히 채택하며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하는 이데올로기적 체계들을 지금 이 개념화에 비추어보면 유익하다. 이데올로기는 본질상 종교와 똑같은 이야기의 구조를 취하지만, 경험의 요소나 인물 중 일부분만 수용하고 다른 것들은 무시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빠진 요소가 있다는 것은, 남아 있는 것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해도 결국 한쪽으로 편향되어 그 유용성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걸 의미한다. 물론 그런 편향에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단순화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일면성이 항상 위험을 부른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빠진 요소가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단순화의 이점을 살리면서도 그에 딸린 맹목성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끝없는 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의 정치적 신념은 대체로 타고난 기질에 기초한다. 우리의 감정이나 동기가 한쪽으로 기우는 경향만큼이나 보수나 진보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서 변화가 위험할 수 있을 때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수주의자가 필요하다. 반면에 일들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진보주의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것을 언제 보존하고 언제 바꿔야 하는지를 결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전쟁/독재/복종 대신에 정치가 있고, 대화가 있다. 우리는 안정과 변화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 열심히 소리 높여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어느 것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정치적 신념의 차이는 결국 두 위대한 아버지 중 누구를 현실의 토대로 보느냐의 차이이다. 진보주의는 이 세계에서는 권위주의적인 폭군이 자비의 여왕을 억압한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수명을 다한 문화에 변덕스러운 구조들이 국민과 외국인을 똑같이 타락시키고 억압한다’ 또는 ‘현대사회의 군산복합체가 환경오염/대량 멸종/ 기후변화를 야기하며, 살아 있는 어머니 지구, 가이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식이다. 실제로 문화가 폭력적이고 억압적일 때가 적지 않은데, 이때는 분명 진보주의적 관점이 유용하다. 반면에 보수주의는 이 세계에서 지혜로운 왕(안전한 공간, 질서, 예측 가능성)이 악의 여왕(무질서와 혼돈의 자연)을 굴복시키고 길들이고 훈육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역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또한 우리를 굶주리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기 위해 항상 공모한다. 문화라는 안전한 보호막이 없었다면 우리는 야생동물에게 잡아먹히고, 한겨울 찬바람에 얼어붙고, 사막의 열기에 쓰러지고, 식량을 마련하지 못해 수시로 굶주렸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이며, 둘 다 ‘옳긴’ 해도 각자만으로는 반쪽자리 진실에 불과하다.

개인: 영웅과 적대자

개인의 긍정적인 요소는 영웅적인 측면이다. 영웅은 자연 앞에 적절한 제물을 바치고 운명과 타협을 해서 자비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맑은 정신으로 빈틈없이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책임을 짊어지고 폭압을 저지하는 사람, 자신의 결점 또는 적의와 거짓에 끌리는 성향을 알아채고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부정적인 요소는 비열하고 한심한 모든 것이다. 이 부정적인 요소는 자기 자신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발견할 수 있으며, 이야기에서는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영웅과 적대자가 있다. 지혜로운 왕과 폭군이 있다. 긍정적인 어머니와 부정적인 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혼돈이 있다. 이 여섯 인물과 모든 것의 모태가 되는 일곱 번째 요소인 혼돈이 함께 세계의 구조를 이룬다. 이 일곱 요소가 모두 존재하며 영원히 존재할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이 일곱 요소는 부자든 빈자든, 축복받은 자든, 저주받은 자든, 재능 있는 자든 재능 없은 자든, 여자든 남자든 간에 모든 영혼이 불가피하게 씨름해야 하는 경험의 요소들이다. 그것이 삶이다. **그것들이** 삶이다. 그 배열들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알지 못하면 당신은 무방비 상태, 순진하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서 거짓과 분개와 교만에 쉬이 사로잡힌다. 보물이 용의 손아귀에 있고, 아름다운 자연이 한순간에 발톱을 드러낼 수 있으며, 당연하게 생각하는 평화로운 사회가 권위주의나 폭정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 모든 나쁜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적대자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현실을 부분적이고 불충분하게 보여주는 이데올로기의 초라한 신봉자가 되어 자기 자신과 남들을 모두 위험에 빠뜨린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명확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이 일곱 가지 요소를 모두 당신의 정치 철학에 담을 것이다.

분명 우리는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결국 자연의 자비에 달려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려 하므로, 종종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적인 구조물들을 계속 건설해야 한다. 문화도 비슷하다. 우리는 조상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물려준 지혜와 사회구조에 백번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자연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은 것처럼 사회적 혜택의 분배도 공평하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또한 감사한다고 해서 사회구조를 맹신하는 눈먼 낙관주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적대자와 권위주의적인 폭군에 동시에 맞서 싸우는 개인으로서 우리는 기능적인 위계 구조가 눈 깜짝할 사이에 비생산적이고 전제적이고 맹목적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그 구조들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불공평해져서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권력이나 신분에 따라 보상이 분배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기존 지도자를 몰아내고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을 선출함으로써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낸다. 이러한 능력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사회의 근본적인 업적에 속한다.

분개

분개는 노여움과 자기연민의 혼합, 자아도취와 복수심이 교묘하게 배어 있는 무시무시한 감정 상태다. 당신이 분개하는 이유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과 그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자연은 온갖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당신을 덮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사회구조의 폭압이 있다. 이 요소는 당신을 일정하게 주조해 적당히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지만, 그와 동시에 당신이 가진 막대한 생명력을 으스러뜨리고, 네모난 당신을 둥근 구명에 억지로 끼워 넣는다.

또한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붙들려 있는데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당신 안에는 꾸물대고 게으르고 거짓말을 하고 당신 자신과 남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인격이 있다. 이처럼 당신 앞에 펼쳐진 혼돈, 자연의 가혹한 힘, 문화의 폭정, 자신의 약한 본성을 고려할 때 당신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느끼는 건 그리 놀랍지 않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을 듯 보이는 이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너무 쉽게 살아온 사람들, 주변에서 응석을 받아주니 자존감이 엉뚱하게 높아진 사람들이 피해자 역할을 자처하고 분개하는 태도를 쉽게 채택한다. 반면에 회복을 바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분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분개는 고통의 불가피한 결과는 아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가 뒤섞여 있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봅시다. 어떤 문제는 당신 탓일 수 있고 다른 문제는 모두가 겪는 삶의 불행일 수 있으니, 둘을 신중하게 가려보세요. 다른 문제는 우리 모두 겪는 삶의 불행이겠지요. 그걸 신중하게 따져봅시다. 그런 뒤 당신 때문에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씩 고쳐나가는 겁니다. 또한 인생의 비극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선 어떻게 맞서야 할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열린 마음으로 진실하고 용감하게 실행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죠.” 사람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강하고 용감해질 수 있다. 또한 두 발로 힘차게 일어섰을 때는 기적과 같은 힘을 발휘하여 어떤 짐이라도 짊어질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다는 능력이 우리에게 무한한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사람들은 용감해지면 심리적 두려움과 분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더 유능해진다. 인생의 짐을 피하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이 된다. 사람들은 세계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수 있는 적의와 분개를 자제하기 시작한다. 더 정직해지고 더 좋은 친구가 된다.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한다.

만일 당신이 고통과 적의에 맞서 용감하고 진실하게 싸운다면 당신은 더 강해지고, 당신의 가족도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 좋은 곳이 된다. 모든 것이 더 나빠지길 바란다면, 그 대신 분개를 선택하면 된다.

거짓과 교만

거짓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저지로는 과오의 죄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태만의 죄다. 태만은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짓의 동기는 무엇일까?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과오의 죄를 저지를 때,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 자기 자신에게 편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동기가 숨어 있다. 하지만 파문을 일으키지 않는 돌멩이는 없다.

우리가 왜 습관적으로 거짓에 빠지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개뿐 아니라 교만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짓과 교만이라는 두 심리 상태는 서로 뒤얽혀 공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거짓과 교만은 공모자들이다.

과오

거짓과 교만의 첫 번째 공모는 신성과 진리와 선함을 관계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창세기>의 초반에서 하나님은 용기, 사랑, 진리를 통해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했다. 용기는 무와 맞서겠다는 신의 의지라 할 수 있다. 무일푼인 상태에서 멋진 인생을 건설한 때나 재난이 닥쳐 혼돈에 빠진 삶의 재건할 때의 용기가 그것이다. 사랑은 궁극적인 목표로,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 안에서 사랑은 가장 상층부에 있으며, 평화롭고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진실한 욕구로 존재한다. 진리는 무엇인가를 창조하지만 아무거나 창조하지 않는다. 진리는 선한 것, 즉 사랑을 명하는 최고의 것을 창조한다. 반면에 교만과 거짓이 합쳐진 마음은 사랑을 목표로 하는 용기 있는 진리가 선한 것을 창조한다는 생각에 반기를 든다. 대신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는 편협한 목적을 위해 언제든 코고 자은 변덕을 부려도 된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는다.

거짓을 작동시키는 두 번째 교만은 자신에게 신과 같은 힘이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남을 속이는 행위는 현실의 구조를 바꾸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왜 그러는 걸까? 이기적인 허위가 만들어내는 세계가 무엇이든 진실된 말이나 행동일 만드는 세계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임수를 통해 현실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건 교만이다. 첫째, 거짓말은 반복하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조만간 거짓말쟁이의 말이나 행동을 신뢰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거짓말이 ‘무사히 넘어갈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거고 심지어 신조차 모를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거짓말로 이익을 얻을 때마다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더 크고 많은 보상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때문에 더 크고 위험한 거짓말이 되풀이되고, 모든 거짓이 들통날 때 추락하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

거짓의 밑바탕이 되는 세 번째 교만은 거짓된 행동이 스스로 강력한 토대를 구축하여, 현실이 바로잡히고 새로워지더라도 자신의 거짓은 폭로되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대단히 복잡하고, 거의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바람피운 사실을 완전히 숨기기는 매우 어렵다. 누군가는 분명 본다. 바람피운 시간을 해명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해여 하고,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냄새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두 사람의 애정이 증오와 경멸로 바뀌기 시작한다(특히 배신당한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변명의 여지는 없다)

거짓을 정당화하는 네 번째 교만은 왜곡된 정의감과 관련이 있는데, 이 잘못된 정의감은 종종 분개에서 싹이 튼다. 이 네 번째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짓에 기대는 이유는, 세계의 비참한 지옥에서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기 때문이다. 나쁜 행동을 한 이유가 인생이 불우했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한다면,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인생을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리는 것은 합리적일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다.

태만

당신이 무섭고 나쁜 일을 만났을 때 뒷짐 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 번째 이유는 허무주의다. 허무주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이라는 일종의 확신이다.

태만의 죄를 부추기는 또 다른 동기는 쉬운 길을 가도 괜찮다면 생각이다. ‘진정한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데 나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떠맡을 때까지 기다리자가 슬쩍 빠져나오는 게 현명하지 않나?’ 하지만 모든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득을 주고받으며, 그런 상호작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번갈아가며 책임을 진다.

만일 당신이 피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해낸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게 되고, 당신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며, 그로 인해 어려운 일을 더 잘하게 된다. 만일 그 모든 걸 대신해주는 아이가 되어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에 직접 부딪히며 성장하는 능력을 잃는다.

마지막으로 태만은 자기 자신을 포함에 모든 인간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나온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이브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들이 취약하고 벌거벗었다는 걸 깨닫는 장면이 나온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두 가지 발전이 동시에 일어나는 까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단의 열매를 왜 먹었는지 설명하라는 요구에 아담은 이브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의식이 생겼으며, 그녀를 만든 건 하나님이라고 책임을 돌린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 최초의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기를 거부한 것은 분개(고통스러운 지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교만(감히 신과 그 신이 창조한 여자를 비난한다)과 관련이 있다. 아담은 쉬운 길로 빠져나가려 한다. 당신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릴 때와 비슷하다. “난 아내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 폭군 같은 상사에게 맞설 필요가 없어. 책임을 회피해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어.” 이 심리는 한편으로는 타성과 비겁함에서 비롯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 자신에 대한 싶은 불신에서 나온다. 아담처럼 당신은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임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도움도 되지 않고 변명도 될 수 없다.

교만과 거짓의 존재론적 위험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한다. 진실한 사람은 의미와 진리를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본능적 감각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해야 하는 선택의 듬직한 길잡이로 삼는다.

그리스도가 모호하게 규정한 죄가 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 그리스도교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성 바울은 성령을 양심과 연결지으며 이 구절의 의미를 밝힌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은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로마서> 9장 1절

양심은 도덕적 지식을 자신과 공유하는 것이다. 거짓을 행하려면 양심의 명령에 따르기를 스스로 거부해야 하는데, 이때 양심이 병든다. 타락에 상처 입지 않고 걸어나가기는 불가능하다. 이는 심지어 신경학적 측면에서도 사실이다. 중독성 약물은 일반적으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에 영향을 주며 갈수록 그 정도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희망이나 가능성에 관련된 쾌감을 만들어 낸다. 우리 뇌가 배선된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분 좋은 행동을 해서 도파민이 분비될 때 그 행동에 관여한 뇌 영역은 더 강력해져 다른 영역보다 우위에 올라 다른 기능들을 억제한다. 따라서 중독성 약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괴물이 자랄 수 있게 양분을 주는 셈이다.

습관적으로 거짓에 빠지고, 그 거짓을 들키지 않고 무사히 넘기는 기간이 길어지면, 당신의 뇌는 거짓에 중독된다. 거짓말이 성공하면 보상이 따르는데, 들킬 위험이 높은데도 발각되지 않았을 때 그 보상은 더욱 짜릿하다. 보상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뇌에는 거짓말을 하고 정당화하는 신경 메커니즘이 발달한다. 단기적으로나마 성공이 거듭되면 그 메커니즘은 점점 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을 너무나 쉽게 현실의 구조와 신의 부족함 탓으로 돌린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

책임감을 갖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진실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실존적 공포에 대해 분개, 거짓, 교만으로 대응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대신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믿음, 존재 자체의 구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또한 세상의 위험과 맞설 수 있고 삶을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충분히 있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는 고결함, 위엄, 의미가 활짝 꽃피우는 삶을 살 수 있다. 주변을 지옥으로 바꿀 정도로 원통해하지 않고 존재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견딜 때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

물론 존재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짓누른다. 자연이 부당하고 고통스럽게 우리를 망가뜨린다. 사회는 폭정으로 기울고, 우리의 정신은 악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할 수 없거나 자연이 우리에게 호의적일 수 없는 건 아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속의 악의를 조금 더 억누르고, 우리의 제도에 더 책임감을 갖고 봉사하고, 올바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금보다 덜 분개한다면 어떻게 될까? 변화의 한계가 어디일지는 신 말고 아무도 모른다. 만일 우리가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존재의 구조를 왜곡하려면 유혹을 피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좋아질까? 우리가 운명의 변덕에 분노하는 대신 감사와 진실을 품는다면? 자기 자신, 국가, 자연이 파괴적으로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잘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분개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법칙 12.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어둠이 빛을 정의한다.

확실성을 찾는 것은 단지 생각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을 뒤흔들고 파괴한 뒤 남은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존하는 문제다. 나는 인생의 고통은 불가피하며 악의로 인해 그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진리로 여긴다. 하지만 내가 훨씬 깊이 믿는 것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초월하고, 사회와 자연에 널린 사악함뿐 아니라 내면의 악의를 억제할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만일 여러분이 인생의 한계에 용감하게 맞선다면, 고통의 해독제가 되어줄 삶의 목적을 갖게 된다. 만일 당신이 고통 앞에서 고결하게 행동한다면,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게 개선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당신은 이 세계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으며,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양심이 귀 기울이면 진실을 만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고통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통에 맞설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감해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개선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계가 없는 듯하다.

순진하게 낙관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순진한 낙관주의는 쉽게 흔들려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냉소주의가 자라난다. 하지만 어둠을 최대한 깊이 꿰뚫어볼 때 그곳에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빛이 흘러나온다. 이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자 큰 위안이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런 일이 얼마나 더 끔찍해질 수 있는지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다.

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여 들지 않는 정도에 비례해서 악한 사람들이 당신을 지배한다. 따라서 어둠이 나타날 때마다 당신은 그 어둠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일은 현실적으로 쓸모가 있다.

악마의 정신

그 유명한 희곡 <파우스트>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지식을 얻는 남자의 이야기다. 괴테의 작품에서 메피스토펠레스는 악마(적대자)다. 이 적대자는 신화 속 인물이자 우리의 긍정적인 의도를 영원히 방해하는 정신이다. 우리는 이 정신을 형이상학이나 종교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심리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서 좋은 의도가 생겨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행동하라는 가르침이 계속 들려오지만, 안쓰럽게도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자주 한다.

불행하고 분개한 마음에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운 행동을 할 때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고 자기 자신을 적대시할 이유도 늘어난다. 대략 다섯 사람 중 한 명이 살면서 심각한 자해를 저지른다.

만일 당신이 머릿속으로 내면의 당신에게 반하는 모든 것, 친구들에게 반하는 모든 것, 남편이나 아내에게 반하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 합치면 적대자가 출현한다. 그것이 바로 괴테의 희곡에 나오는 악마 메피스트펠레스다. 적대자는 **반대하고 충돌하는 정신**으로, 메피스토펠레스가 본인을 바로 그렇게 묘사한다. “나는 곧 부정하는 정신이다.” 왜 그럴까? 세상의 모든 것인 심히 제약되어 있고 불완전하며, 그로 인해 많은 문제와 공포가 일어나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은 충분히 정당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합리화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은 공허한 추상적 진술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과 치열하게 싸운다. 여자들은 임신을 고려할 때 스스로 이렇게 묻는다. ‘이런 세상에 아기를 낳아야 할까? 그게 도적적인 결정일까?’

지젝: 그리스도교의 전통에서는 예수의 형상을 한 하나님 자신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선하신 주 하나님에게 절망한다. 죽기 직전 고통이 극에 달할 때 그는 이렇게 되뇐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부당한, 배신, 고통, 죽음으로 이어지는 참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 하나님마저도 신념을 잃을 수 있다.

반출생주의자 베나타르 그에 따르면,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서 새로운 의식적 존재가 생겨나게 하는 것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상 죄악이며, 인간이 도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행동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멸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확신하건데 반출생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적대자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 모든 한계와 악의를 볼 때 인생은 아주 끔찍해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적대자 정신의 핵심 교의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정신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말로 실현되었을 때 이미 충분히 나쁜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독자와 시청자들, 특히 죽을 병에 걸린 부모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당신은 비통한 시간을 보낼 테지만 그럼에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잘 보살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절대자의 힘, 신성한 힘을 깨워 드러나게 한다. 인류는 아주 오랜 시간 죽음과 상실을 다뤄왔다. 우리는 그 일을 용케 해낸 자들의 후손이다. 우리에게는 암울한 일이지만 죽음과 상실을 다룰 능력이 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사랑하는 사람의 끝없는 고통일 리 없다. 오히려 많은 사람은 임종의 순간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애도한 후에 다시 일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리라. 죽음 앞에서 강인해지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 모두에게 더 낫다.

**감사는 원망의 대안이며, 어쩌면 유일한 대안일지 모른다.**

인생의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당신은 용기를 낼 수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제들이 신경을 집중할 수 있다. 인생이 얼마나 고되며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감사는 삶의 어려움에 용감무쌍하게 맞서는 태도다. 당신이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은 바보같이 순진해서가 아니다. 삶이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자기 자신과 세계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당신이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잊지 않기로 용감하게 결심했기에 감사할 수 있다. 모든 존재와 가능성에 대한 감사는 세상의 변덕스러움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태도다.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들에게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언제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친구에게 고마움을 잃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우정은 얻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다. 사회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 세상에 먼저 다녀간 사람들이 땀 흘려 노력해 사회구조/의례/문화/예술/기술/전기/상하수도 같은 경이로운 기반을 남긴 덕분에 우리는 과거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

용기의 포괄어, 사랑

만일 살아 있는 모든 것을 괴롭히고 파괴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감정이 분개와 비통함과 증오라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든 개선하겠다는 결심은 사랑에서 나온다.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행동이며, 적어도 중요한 면에서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원망에도 불구하고 깊은 차원에서 “이 모든 것에 굴하지 않고, **어떤 일이 닥치든** 계속 나아가라” 라고 외치는 일이다.

사랑하겠다는 어려운 결심이 서야 아무리 힘들더라도 선하게 행동할 용기를 낼 수 있다.

애도는 사랑을 반영한다. 어쩌면 애도는 사랑의 궁극적 증거일지 모른다. 애도는 떠난 사람이 비록 한계가 있고 결함이 있었더라도, 더 나아가 모든 인생이 그 자체로 한계가 있고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의 삶이 가치 있었다는 믿음을 저도 모르게 드러내는 증거다. 그렇지 않으면 왜 저도 모르게 비통함과 상실감(자기기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느낌)을 느끼겠는가?

어쨌든 존재는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는 인생의 재난에 직면하여 의식적으로, 용감하게 고마워하는 과정이다.

어느 가족모임에서나 우리는 따뜻함/추억/함께했던 경험을 나누지만, 또한 어쩔 수 없는 슬픔이 불안한 긴장을 형성한다. 어떤 친척은 실직 상태에 있거나 좋지 않은 길에서 방황한다. 어떤 친척은 나이가 들어 활력과 건강을 잃는다. 이 모든 게 고통스럽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고, 서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소망한다. ‘우린 함께 모여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어.’

우리는 상대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또한 **상대방의 한계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는 이해할 가치가 매우 높은 말이다. 이 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속 감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 세상은 아주 어두운 곳이고,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검은 성분이 들어있지만, 우라는 서로에게서 실재하는 것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독특하게 섞여 있는 것을 본다. 우리가 신뢰와 사랑에 기초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때 그 가능성은 정말로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가 용기를 낸다면 상대방의 한계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심연과 어둠의 해독제를 발견할 수 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